

생협, 다양한 변화 · 발전 계획

독립법인 출범 ... 장학금 · 생활문화 등 지원사업 추진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이 오랜 난항 끝에 드디어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관련인터뷰 2면(보도) 생협은 지난 3월 26일 사업자등록을 취득해 독립법인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이에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독립법인으로 거듭났다.

생협은 앞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학교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독립법인 출범에 따라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꾀하고 있다.

먼저 생협은 다양한 편의시

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량복합매장 내에 여행사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화관 벤치 옆에 스낵코너를 설치하는 것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잉여금은 출자금배당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지속적인 장학금의 확충으로 '생협우정장학금'의 폭넓은 지원도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내 주체들의 생활문화 사업추진을 위해 교직원들에게는 연구비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에게

는 특강사업에 대한 지원을, 학부생들에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동제사업 등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주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문화유적 답사와 환경운동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예정 중이다.

현재 생협은 이 같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식대인상을 우선과제로 보고 계획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생협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 경기불황과 해마다 거둬지는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식당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대가격의 인

상에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학생식당의 식대는 2003년 3월부터 1,800원대의 메뉴를 추가해 1,300원부터 1,800원까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자판기 커피가격을 일반커피 100원과 고급커피 200원으로 나누는 커피가격 이원화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해 생협 김용문 팀장은 "식대와 커피가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국제 걷기대회' 개최

건학98주년 기념 ... 30일까지 신청

본교가 건학 98주년을 기념해 '서울 국제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 9일 여의도공원 내 문화광장에서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체육진흥회' '사랑의 전화'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참가 등록비 일부를 이웃사랑 나누기 성금으로 조금씩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깨끗한 서울 만들기 일환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거리를 청소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종목은 10km, 20km, 30km로 나뉘며 종목별 코스는 △10km=여의도공원 문화광장을 거쳐 선유도공원, 절두산 및 마포대교를 거쳐 출발점에 도착 △20km=여의도공원 문화광장을 거쳐 성산대교,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절두산 및 마포대교를 지나 출발점에 도착 △30km=여의도공원 문화광장을 거쳐 가양대교와 난지도 하늘공원을 거쳐 상암 월드컵 경기장 및 절두산, 마포대교를 지나 출발점에 도착할 예정이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1만 명이

며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3천원이며 신청은 오늘(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본교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와 한국체육진흥회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행사 날 오전 9시 반까지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사 일정은 크게 식전행사와 식후 행사로 나뉘며 식전에는 축하 행사 및 참가자들의 참가비를 이웃사랑 나누기 성금으로 전달하는 개회식 및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의 걷기 대회가 종료된 직후에는 각종 축하 공연과 행운 상품 추첨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한편 이번 걷기대회의 완보자에게는 국제시민스포츠타임과 한국체육진흥회, 한국걷기연맹이 인증하는 완보증을 수여할 예정이며 행사 중 환경캠페인 봉사활동에 참여할 시 봉사증을 지급한다.

대학부
dmz@dongguk.edu

2005학년도 입시요강 발표

수시모집 오는 6월 3일부터 실시

본교 2005학년도 수시·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됐다.

이번 모집요강에 따르면 2005학년도 본교 1학기 수시모집은 오는 6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 실시되며 오는 8월 7일 최종합격자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전형유형은 일반우수자와 LST(Leadership-Special Talent)로 나뉘며 1단계에서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한 뒤 2차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올해 대입수험능력시험 체계가 제7차 교육과정의 시작으로 변화됨에 따라 본교 수능능력 시험 반영 방법에도 변화가 있다. 이번 모집요강은 지난해까지와는 다르게 탐구영역의 경우 성적에 가장 우수한 3개 과목을 선택한 후 일괄 합산해 점수 적용을 하게 됐다.

수시1, 2학기과 정시모집의 지원자격과 전형방법, 모집인원 등에 대한 정보는 본교 학생생활 홈페이지를 통해 참조하면 된다.



더욱 값진 한표 ...

부재자 투표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실시됐으며, 중구 지역 투표소는 중구 구민회관에 설치됐다. 이에 본교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사명한 학생들은 이곳에서 투표를 실시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한총련 낙선후보 33명 발표

합법적 낙선운동 진행할 계획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백종호·한국의대 총학생회장)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키야 될 후보 3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한총련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후보 33명을 '필낙선' 후보로 선정하고 '한나라당 완전 낙선 선봉대'와 전국대학생들의 힘을 모아 합법적인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후보선정 기준은 한나라당 후보 완전 낙선을 기본 목표로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선정기준으로는 △남북 교류법 개악 △대북송금 특검을 통한 남북 교류 활성화 차단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각종 부정부패 연루

자 등 민중 생존권에 반한 활동을 한 후보 등이다.

경영학과 78년 동문회 장학금 1천14만원 전달

경영학과 78년 졸업동문회가 지난 2일 경영학과 장학기금으로 1천14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장학기금은 78년 당시 졸업생들이 이순용(경영학) 명예 교수에게 전달한 약 50만원의 장학기금을 이 교수가 투자신탁 등의 관리로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순용 명예교수는 "이 기금이 경영학과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구부 결승토너먼트 진출

오는 16일부터 동대문야구장 등에서 4일간 진행

'2004전국대학야구춘계리그전'에 출전한 본교 야구부가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야구부는 지난 11일 진행된 제주산업대의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10대5로 승리해 4

승 2패로 조 3위를 기록했다. 이에 야구부는 오는 16일부터 4일간 서울 동대문·인천 야구장에서 총 12개팀이 참가하는 결승토너먼트를 치르게 된다.

보리소

가정, 대화, 교육

현대 한국의 가정은 한국적 문화 전통에서 기인된 문예와 더불어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파생된 비교육적 요소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 삼대 이상의 세대간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폭넓은 인간관계 속에서 원만한 사회 적응 능력을 배울 수 있었던 장점도 있었으나, 소가족 제도에서는 자부심이 부족하고 예의를 모르는 자기 중심형 인간을 양

산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통계청의 국민생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누구와 어려운 고민거리를 상담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친구를 꼽은 청소년은 56.4%로 가장 많이 답한 반면, 부모라고 답한 이는 12%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해를 갈수록 점점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사회는 구조적으로 가족간의 대화의 통로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대화를 위한 상호간의 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부모 중에는 자녀를 자신의 분신이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생각은 일체의 존재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空)의 도리를 모르는 데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났지만 그것은 하나의 인연일 뿐, 그들 나름의 주체적 인생이 따로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

므로 자녀에게 자신의 사상이나 의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영성과 불성을 지닌 인격적 주체인으로 존중하며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대해야 한다. 대화의 채널이 일상화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김용표
불교학과 교수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5월 10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지면안내

11면 사회

장애인의 차별, 끝까지 않은 문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KTX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알아보았다.

4면 해설

교육정책 좌담회



지난 8일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학주체들이 말하는 교육정책과 관련한 좌담회를 지면화했다.

12면 생활

시험 정보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시험에 관련된 학생들의 생각과 유익하게 시험기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 창간 54주년,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올해로 동대신문 창간 54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들과 함께 걸어온 지난 54년, 그 길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대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동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자요구안 학교·총학 입장 엇갈려

총학 총궐기대회 개최 ... 야간강좌폐지 철회 등 주장

총학생회(회장=구자룡·야간영문4)가 제2차 총궐기대회에서 등록금 동결과 야간강좌 폐지계획 철회 등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2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9일 팔당도에서 진행된 이번 총궐기대회는 학내 사안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이외에 △교무위원 성명서 논박 △직원노조 규탄 △사회학과 성추행 혐의 교수 해임 등의 사안을 다뤘다.

이와 관련해 이동철(특일4) 동아리 연합회장은 "학교당국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궐기대회를 마친 100여명의 학생들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임시 총장 업무실에 방문했으나 이는 총장 부재로 무산됐다.

한편 총학생회는 2004학년도 10대 학자 요구안을 지난 4월초 학교측에 제시했다.

학자요구안을 살펴보면 △등록금 동결 △재단의 대학감사 실시 및 학교 운영과 재정구조 공개 △중대 부속병원 교비구입 반대 △2003년 등록금 인상분 1%를 올해 2학기에 일괄 지급 △교육환경 관련 기사사·식당 문제 해결 △불대·법대 공간재배치에 학생참여 보장 △야간강좌 폐지계획 철회 △학과제 전면 전환과 학점포지제 실시 △사회학과 성추행 혐의 교수 해임 등이다.

이 중 '재단의 교육부감사 실시'와 관련해 임수욱(화공4) 총학생회 학원자주화투쟁 위원장은 "학교측이 공개하는 예·결산안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다"며 "교비 사용의 세부 항목까지 알기 위해서는 교육부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야간강좌를 폐지할 경우 야간에만 강좌를 수강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의 학업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측의 폐지계획을 즉

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전체적으로 이번 학자요구안을 합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감사를 받아도 별 문제 없을 것이고, 중대병원 매입에는 교비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간강좌 폐지계획과 관련해 학교측은 직장인의 경우 야간강좌수강이 아니라도 방송통신대학을 비롯해 인터넷을 이용한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차 총궐기에서 야간강좌폐지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최민희 기자

총학생회는 현재 감사실시에 대한 연서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6천여명의 학생들에게 연서를 받을 경우 교육부에 감사의뢰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 제3차 총궐기대회를 열어 지난 학원자주화투쟁을 총 결산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사설

동국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완전한 불남인데 동약에는 아직도 냉기로 가득하다. 본관 점거 12일째이지만 학교측과 학생회가 대화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생회는 학교측이 학자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점거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학교 역시 문제를 장기전으로 생각하며 학생회 요구안 수용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로에게 득이 될리 없는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교무위원과 학생회 측이 각각 본관점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교수회, 직원노조도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신뢰가 밑바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단순한 '보여주기' 식의 입장발표에 그칠 뿐이다. 성명서를 통한 입장표명은 서로와의 대면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재단측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짐작컨대 점거가 빠른 시일안에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대로 점거상황을 방치해둘 수

는 없을 터, 열린대화의 장이 필요함은 말할 나위 없다. 학교와 학생회뿐만 아니라 학내 재주체들이 모여 속시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급으로서는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한시적인 '동국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학내 재주체들이 모여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아무런 대화조건을 두지 않고 일단 재단관계자 교무위원 교수회 직원노조 대학원총학생회 학부총학생회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말이다. 굳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이들의 만남 자체가 지급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건학 100년을 2년여 앞둔 지금 동국대로대내·외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건학 100주년을 자축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학내구성원들과 동문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이제 학교와 학생회의 선택만이 남았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이번 본관점거 사태를 차분하게 매듭지어 응집력 강한 동국의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 하나되어 ... 불교대 해오름식이 지난 9일 나체밭에서 열렸다. 이번 해오름식은 1000여명의 불교대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고사 △문예대 공연 △티셔츠로 진행됐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대학원 논문 심사원서 접수 13, 14일 일반대학원 교학과

대학원(원장=박인국·생물학)은 '2003학년도 후기 석·박사 학위 청구논문 심사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이며 대학원 교학과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시 신청서와 함께 이력서, 학과추천서와 심사용 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료는 석사 6만원, 박사는 30만원이다.

단과대별 해오름식 열려 이번 주 4개 단과대 진행

문과대·법대·예술대·야간강좌가 해오름식을 진행한다. 문과대는 오는 14일 오후 6시 본관 앞에서 △입방식 △학과장 인사 △문예단 공연 △새내기 소개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법대는 오늘(12일) 오후 6시 나체밭에서 △고사 △문예단 공연 △학자 관련 보고 등으로 해오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대는 오늘 오후 7시 본관 앞에서, 야간강좌는 오는 14일 오후 7시 통일광장에서 각각 해오름식을 진행한다.

메아리

시대착오

▲"나는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다" 지난해 여름 한 방송국은 현대에 떨어진 삼국시대 공주의 이야기를 소재로 드라마를 제작했다. 이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판타지거나 나오는 황당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시대와 동떨어진 여주인공의 어눌한 고어체 말투와 어색한 연기는 일부의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 드라마 인기로 상상작용을 했다.

▲시대와 동떨어진 황당한 일은 현실에서도 인기를 타고 있다.

지난 8일 2003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서부총련 의장이었던 임지훈 경기도 총학생회장 주진안(국교4) 군 등 3명이 검찰에 의해 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런 사건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반공 이데올로기로부터,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인 산물로부터 전혀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남측 정부가 '햇볕정책'을 펴며 북측과 8.15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국민들은 금강산을

넘어 평양까지 관광하는 시대이지만 이는 결코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아직까지도 전국에는 단순히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캠퍼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학생이 60여명이나 존재한다. 또한 이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있는 경찰, 검찰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 때에는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대북정책이 저렇고 하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당선 후에는 모두 잊어버리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한다.

▲드라마는 부여주가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간 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가 판치던 60년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도 그 역할을 그치고 우리 사회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 산물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우리민족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통일에 저해되는 요인이며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폐지는 17대 국회가 이뤄야 할 핵심 사안이 돼야 할 것이다.

최우석 대학부장
kauri21@dongguk.edu

학내성폭력 반대 움직임 활발

서명운동·집회 등 진행돼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내주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회학과 학생회(회장=유민지·사회3)를 비롯해 여성학 소모임

'버리' 등은 오는 14일 본관 앞에서 사회학과 K교수 해임을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7일부터는 K교수 해임에 동의하는 학생 서

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민지 사회학과 학생회장은 "K교수가 발금형 선고에 대해 항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교수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가 발표한 10대 학자요구안에도 K교수 해임이 포함되어 있다.

2004 동국해외탐방장학생 선발 안내

2004 '동국해외탐방장학'은 학생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고, 현장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1. 탐방대상**
해당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노하우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각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
※ 탐방지역은 1개 대륙으로 한정함.
- 2. 응모주제**
전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탐방 및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망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테마
- 3.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장학규정에 따라 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취득, 평균점수 3.0이상인 자(불교대, 경영대, 사회과 학대외 1.2,3학년, 경제학 전공은 15학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 탐방활동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학생 1명 이상 참여
- 4. 응모팀 구성**
동일전공(대학) 재학생 3명으로 한다.
(탐방구성 초과 및 추후 명단 교체 불가)
- 5. 선발인원**
60명(20팀×3명), 계획서가 미비할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6. 탐방국가 및 선발팀수**
① 미주(남미포함) : 7팀 ② 유럽(호주포함) : 7팀,
③ 일본 : 3팀 ④ 중국,아시아 : 7팀
- 7. 탐방기간** : 2주일간(13박 14일)
※ 기간은 7월5일부터 8월22일 사이에 자율적으로 결정
- 8. 탐방팀 지원내역** : 왕복항공권(제1목적지) 및 소정의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지원내역(1인기준)
① 미주(남미포함) : 50만원 ② 유럽(호주포함) : 50만원
③ 러시아 : 30만원 ④ 일본 : 40만원
⑤ 중국,아시아 : 20만원
※ 여권, 비자 등 관련서류는 개인별 준비
- 9.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소정양식) :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학업지도교수 탐방계획 지도 확인서(소정양식) :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서약서(소정양식) :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탐방계획서(파일로 별도 제출)
- 탐방분야, 목적
- 탐방일정, 지역, 국가, 탐방대상 기관
- 탐방활동·계획(내용)
- 탐방활동의 사회적 기여 또는 기대효과
◆ 탐방계획서 형식
가. 형식 : MS Word 또는 아래내용 글자크기 - 12포인트, 용지 - A4용지(좌우여백 20mm, 상하여백 15mm)
나. 분량 : A4용지 20매 이상 분량으로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이미지 삽입 가능
○ 인터넷중계 계획서
- 10. 응모기간 및 접수처**
2004. 5. 19(수) ~ 20(목), 학생복지실(본관 3층)
- 11. 선발방법(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
※ 각 국가별로 팀을 선발하며, 계획서가 미비한 경우 제외함.
- 12.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일정 발표**
2004년 5월 31일 이전 본교 홈페이지("세계로 가는 동국 공지사향")에 공고 예정
- 13. 탐방팀 의무사항**
- 여권 사본 1부 제출
- 탐방기간 중 인터넷 중계(각종 자료, 간행물, 사진 등)
- 탐방결과보고서 제출(탐방 종료후 2주 이내)
- 탐방보고회 프리젠테이션
- 탐방후 탐방활동 장소 및 내용과 관련된 사진전시회 개최
- 14. 우수탐방팀 시상**
탐방결과보고서 심사를 통해 우수 탐방팀 선발, 시상
- 대 상 : 1팀(장학금 + 등록금 50%)
- 우수상 : 1팀(장학금 + 등록금 30%)
- 포토그래프상 : 1팀(팀당 50만원)

2004년도 IT분야 해외연수 지원사업 예비신청안내

- 1. 사업개요**
국내 우수인력을 해외 우수 IT교육기관에 파견, 교육 실시
- 2. 사업목적**
국내 대학(원)생이 해외 우수 IT교육기관에서 IT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IT지식과 기술에 Global 감각을 배양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IT인재를 양성
- 3. 개설 프로그램 및 학점인정**
【개설 프로그램】
개설 프로그램은 지원상황과 정보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IT 전문교육과정 : Internet Programming, OCP-DBA, Applied e-Business with .NET 과정
* 각 프로그램에는 영어교육과 1개월 이상의 Real-life 프로젝트가 포함됨
【학점인정】
* 본교의 경우 IT관련 전공의 경우 전공학점은 최대 15학점까지, 영어(교양선택 3영역) 3학점 등 최대 18학점을 인정함. 전공학점으로 불인정 시 교양선택으로 졸업학점으로 인정함.
- 4. 지원규모**
- 탐방지원금 : 900만원/1인당
- 학교장학금 : 본교 등록금의 70%/1인당
(단 해당 학기 본교 등록금은 필히 납부하여야 함)
- 5. 신청자격 (예비선발자)**
- IT(부, 복수)전공 학생으로 최소2학기 이상 마친자로서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총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IT관련전공: 정보통신,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정보시스템, 정보관리, 전기/전자, 반도체, 전산통계 등
- 영어 성적 : IT 전문교육과정 : TOEFL CBT 190(PBT 520), TOEIC 700, TEPS 602, G-TELP 85(Level 3), 62(Level 2) 이상인 자
※ 2004년도 2학기 마지막 학기인 학생은 졸업이 지연될 수 있음.
※ IT과목을 15학점 이상 수강한 비전공자의 경우에도 신청인원의 20% 이내에서 예비 선발 가능
※ 영어 성적이 만족이 안되어도 1개월간의 토익강좌 수강 및 개인 학습을 통하여 토익 700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예비선발자로 선정
- 6. 신청방법**
- 관련학과 교수님으로 구성된 면접/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영어 점수, 성적, IT관련 전공 수강과목 및 취득 학점 수, 학업의지 등을 고려함)
- IT 해외연수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 2004.4.21(수) 오후5시, 다량관 세미나실
- 7.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기한
1차 : 2004년 4월 26일(월) 16:00까지
(1차 선정 후 잔여 T/O 범위 내에서 자격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을 선착순으로 접수함, 공식 영어성적표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방법
- 제출서류
1.지원신청서 2.수학계획서
3.성적증명서 4.공식 영어성적표(추후 제출가능)
- 접수 및 문의처
정보산업대학 교학과(02)2260-3863 또는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과 최은만교수(02)2260-3345, emchoi@dongguk.edu
- 8. 추후일정**
가. IT 해외연수 설명회: 2004.4.21(수), 오후5시, 다량관세미나실
나. 1차 신청서 접수: 2004.4.26(월)까지 1차 지원접수 마감
다. 재인사 접수: 5월 초
라. 국내교육 실시: 7월초 ~ 7월말 (최종인원 확정)
마. 출국을 위한 수속: 8월 초
바. 해외교육을 위한 출국: 9월초
사. 해외교육: 2004년 9월 ~ 2005년 2월
- 9. 개인 필요경비**
정통부 심사 후 최종 결정되나 전체 필요경비는 수료료, 항공료, 보험, 교재 등을 포함하여 아파트 렌트 또는 홈스테이내에 따라 변동이 있음. 직년의 경우 6개월 대략 1700만원 내외(정부지원금, 학교 장학금 포함)가 되었음.

대학주체들이 말하는 교육정책의 실태와 방향

“장기적이고 주체적인 정책설정 우선돼야”

2004년 총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대학 구성원들은 정당별 교육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8일 본사 회의실에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주최로 ‘정당별 교육 정책! 대학주체들이 평가한다’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열려 정당들의 대학정책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좌담회의 사회는 고영(고려대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총선대학생연대 집행위원장이 진행했으며 패널로는 박거용(상명대 영어교육)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장 한정희(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 정규환 한국대학비정규직교수 노동조합 부위원장, 임수욱(화공4) 본교 총학생회 학자투위위원장이 참여했다.

있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정희(이하 한)=먼저 지금까지 교육정책을 망쳐놓은 사람들이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별로는 전향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인물 한사람 한사람의 정책을 보면 그러한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당의 이념으로 정책을 생산하기보다는 해당시기 민원대로 절충되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교육철학이 제시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임수욱(이하 임)=교육은 백년대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은 교육부장관 혹은 해당시기 국회의 바뀔 때마다 방향 없이 흔들리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학생들이다.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수의 50%는 제외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학운영에 합리적이고 비관적인 세력이 될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교수가 법적지위를 가졌을 때 제대로 된 학내민주화가 이뤄진다.

박=학내 민주화는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의 민주적 개정 속에서 대학운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는 대학 3주체의 대표기구가 공식기구가 아니다. 이런 현상에서 총장선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다. 대학 구성원의 법적 지위 및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각 당 정책을 보면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거론되지도 않고 있다.

임=동의한다. 총장직선제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장일 경우에도 구성원들의 지위가 법제화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약으로 제시한 부분을 발뺌하면 그만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표기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사회=고영(총선대학생연대집행위원장) 박거용(전국 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한정희(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 정규환(한국대학비정규직교수 노동조합 부위원장) 임수욱(본교 총학생회 학자투위위원장)

정당별 교육정책 부재

사회=그동안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17대 국회의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한다.

박거용(이하 박)=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모두 전문위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교육철학은 고사하고 지난 대선 때 공약 중에서 교육부분만 빼서 나왔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당의 교육정책을 비교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본다.

정당의 정책생산 구조가 변해야한다. 각 당 정책보좌관을 전문적으로 교육시켜 국회가 바뀌어도 정책보좌관은 바뀌지 않게 해 연속·전문적으로 교육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규환(이하 정)=동의한다. 각 정당의 교육철학과 이념이 부재한 상태다. 전직 대학총장이 전문가인양 교육부장관을 맡으면서 대학운영에 관련된 사람의 이익관계를 대변하는 정책만 제출하고



정규환

‘대학운영’ 건설돼야

사회=총장선출 및 대학운영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견해는.

한=국립대는 총장선거가 치러지지만 사립대의 경우 약 90%가 재단에서 임명하고 있어 학내구성원이 참여하는 구조자체가 막혀있는 현실이다.

현재 정당별 정책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정책만 나와 있고 구성원이 대학운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공약은 없다. 비리가 난무한 대학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지위를 법제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구성원의 대표가 모여 대학운영위를 건설해야한다.

정=대학교수의 50%가 시간강사로 불리는 대학강사다. 하지만 대학강사는 총장선거뿐 아니라 학내 모든 사안에 있어 의사결정통로가 없다. 현재의 학내 3주체라 불리는 교수·교직원·학생 중

교육재정 부족이 근본원인

사회=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교육재정에 대한 견해는.

박=교육재정확보를 위한 혁명적인 조치 전에는 숫자놀음에 그칠 것이다. 민노당 등 진보정당에서 무상교육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제제도의 대폭적인 변화 전에는 불가능하다. 대기업에서 교육세를 거둬드린대거나 남북협력력을 통해 무기사용료 등을 축소하는 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등록금 납부 시 등록금 후불제, 분할제 등 현재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국립대 공인법인화는 국립대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과 함께 하는 정당을 선출해서는 안 된다.

임=보통 등록금 투쟁의 과정에서 등록금인상이 학내의 문제로 귀결되기 쉬우나 등록금의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재정 부족이다. 정부가 교육에 대한 철학 없이 수익자부담원칙만 내세우며 학내 재정 부족분을 학생들의 책임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조금 있는 교육재정마저도 일부 상위권 대학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현재 정부정책이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 있는 일부 대학만 살아남고 나머지 대학은 모두 죽는다. 학생들의 의식도 잘못됐다. 등록금 납부자가 자

신이 아닌 부모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방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납부하게 된다면 등록금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또한 학교 측도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생을 협상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한=교육재정 중 대학재정이 전체의 11%밖에 되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 이것이 40%로 분할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재정이 20%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 재단이 학교운영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잡아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필요

사회=지방대학이 입학정원 감소, 수도권 대학으로의 유출, 취업 시 소외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의견은.

임=취업시 차별이 가장 큰 문제다. 현 정부의 대안은 미봉책일 뿐이다. 대학평준화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지방대 소외문제는 한국어에서의 지역 서열화 문제, 대학구조조정 문제, 대학서열화문제 등 총체적 교육문제의 결과물이다. 각 당의 정책은 지방대 육성안에 대한 재정지원밖에 없다. 이미 서열화된 상황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

정=국·공립대 통합 운영 및 사립대의 국립화가 대학 서열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정책은 완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대학으로 보고 있다. 이는 말이 마차를 이끌어야 하는데 마차가 말을 이끌고 있는 격이다. 지역의 경제 문화 발전이 균등하게 됐을 때 해당 지방 대학 역시 그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체적 대처방안 세워야

사회=교육개방에 있어 민노당이 반대입장을 내놓았을 뿐 대다수 정당은 이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어떻게 보는가.

정=민주노동당 외에는 미국의 우산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대적이고 식민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17대 국회는 교육개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지녀야 한다.

한=이미 양허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현재 모든 조건이 마련됐음에도 외국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과실금 송금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FTA 협정을 통해 투자송금을 막아야 할 것이다.

박=교육개방에 있어 자발적 자율화 조치가 가장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협상도 하기 전에 빗장을 열어놓은 격이다. 과실금 송금, 외국교육기관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오면 대학졸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주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한=한나라당이 교육개방관련 정책이 없는 것은 이미 개방해야한다고 당론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와서 더 활발해지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역시 개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책에 관심 기울여야

사회=각 정당에서 내놓은 교육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정책의 실효성 대해 평한다.

임=교육이념은 그 정당의 정치 이념과 같이 할 것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망쳐놓은 기득권 정당이 아닌 개혁적인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이뤄 학생들이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으면 한다.

한=각 정당 교육정책의 내용이 부재하다보니 대안만 토론했던 것 같다. 교육주체들이 현실적으로 제안하면서 견제하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정=17대 총선에서는 교육환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지해야하며 교육주체들의 요구사항이 광범위하게 선전되고 연대해서 진행돼야 한다.

박=국민들이 초·중·고 교육에는 관심이 많아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시되지만 대학교육에는 관심이 없다보니 대학정책은 부재하다. 교육전문위원들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리=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제44주년 4. 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5회 동국인 등산대회 개최

4. 19혁명 44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참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4.19기념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국가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1. 행사일시 : 2004. 4. 16.(금) 09:00~16:00
- 2. 행사장소 : 국립 4.19묘지(추모식) 및 북한산(등산대회) (집결장소 및 시간 : 국립 4.19묘지 내(內) 광장, 09:00까지)
- 3. 행사내용 : 제44주년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5회 동국인 등산대회
- 4. 행사일정 및 준수사항

시간	행사내용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08:30	등산대회 단체팀 확인	안내책자 수령 및 '산불조심리본' (행사 분부에서 제공) 착용
10:00	4.19혁명 44주년 기념 추모식 (현화, 분향, 무념)	참가자 전원 4.19 기념탑 앞으로 이동 후 합동 분향
10:20	제35회 동국인 등산대회 개최식	
10:30	등산대회 출발(북한산)	
12:20	중식시간(대동문)	중식 시간(12:20~13:30) 엄수 및 과도한 음식 섭취(시상 기준)
13:30	전원 출발(하산)	쓰레기 투기 절대 금지 (하산 시 반드시 가지고 내려 올 것)
15:20	폐회식 장소 도착 (북한산성 대표소 앞 주차장)	폐회식 장소 도착 시간 엄수 (시상 기준)
15:30	시상식 및 폐회식	
16:00	해산 및 정리	귀가 시간에 맞춰 대중 교통 증차 예정

- 5. 민주주의를 위해 신화하신 순국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4.19정신의 참뜻을 기리기 위해 동국인 모두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합니다. 가. 4.19기념 추모식 : 행사참가자 전원 참석 → 행사 전 4.19 기념탑 앞으로 함께 이동하여 합동 분향

- 나. 동국인 등산대회 : 중식 시간 및 폐회식장소 도착 시간을 엄수하고, 중식 시 지나친 과음 절대 삼가
- 다. 등산대회 중식 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모든 쓰레기는 하산 시 반드시 가지고 내려 올 것

- 6. 등산경로 : 국립4.19묘지 → 백련사매표소 → 대동문 → 보국문 → 중성문 → 대서문 → 북한산성매표소 → 북한산성매표소 앞 주차장

- 7. 교통편 가. 시내버스 ○ 6, 6-1, 16-1, 8, 8-1, 23, 28, 333 : 국립4.19묘지 입구에서 하차. 도보10분 ○ 27, 127(우회함) : 국립4.19묘지 앞에서 하차. 도보 3분 나. 지하철 : 4호선 수유전철역(마을버스 및 학교(셔틀)버스 이용) 다. 셔틀버스 3대 운영 : 4호선 수유전철역 5번출구 ↔ 국립 4.19묘지 입구 (운영시간 : 08:00 ~ 10:00까지)

- 8. 참가대상 :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법인 등 모든 동국가족
- 9. 팀구성 : 가. 4인 1조팀 : 학(부)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나. 학과 단체팀 :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수 2인 이상 참가 다. 동아리 단체팀 : 20명 이상으로 구성, 지도교수 참가 시 가산점 라. 행정부서 단체팀 : 행정부서 단위로 구성(기획인사처, 대외협력처, 교무처, 연구처, 총무처, 정보관리실, 중앙도서관 등) ※ 상기의 교직원 단체팀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부서는 4인1조로 팀을 구성 (홍보실, 단과대학 교학과, 각 대학원 교학부(과), 각 부속기관 등)

- 10. 시 상 가. 4인1조팀 : 총12팀 시상, 최우수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자연보호상 5팀 나. 학과 단체팀 : 금상 1팀(₩1,000,000), 은상 2팀(각 ₩500,000), 동상 3팀(각 ₩300,000) 다. 동아리 단체팀 : 2팀 각 ₩300,000 라. 교직원 단체팀 : 금상 1팀(₩500,000), 은상 2팀(각 ₩300,000)
- 11. 접수기간 : 2004. 3. 31.(수) ~ 4. 13.(화) 09:00 ~ 17:00
- 12. 접수처 가.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교학과 나. 4인 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처 학생복지실(본관 3층)
- 13. 유의사항 가. 단체팀의 경우 접수기간 내 접수한 팀에 한하여 시상 나. 학과 단체팀 및 동아리 단체팀은 반드시 참가자 명단 제출 (양식은 각 단과대학 교학과 또는 학생복지실에서 배부) 다. 학과 및 동아리 단체팀은 행사당일 행렬의 선두와 후미에 세울 깃발 2개 준비 라. 우천시에도 대회는 진행됨.(우산 또는 우의는 개별 준비) 마. 도시락은 각자 준비(쓰레기 봉투도 필히 준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전화:2260-3048)로 문의

※ 행사 당일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학 생 처

학술기고- '채털리 부인의 연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산업사회와 자연적 삶의 고찰

'채털리 부인의 연인'(Lady Chatterley's Lover)은 로렌스(D. H. Lawrence, 1885-1930)가 쓴 10여권의 소설 중 마지막 소설로 출판 때부터 술한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그 이유는 예술성은 전혀 없는 외설물이라는 낙인이 찍혀 로렌스는 영국 작가이면서도 이 소설을 이탈리아에서 출판(1928)을 해야 했다.

그 이유는 영어를 아는 식자공이 그토록 '더러운' 책의 인쇄작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 낱말을 전혀 모르는 이탈리아 식자공이 작업을 한 까닭에 이 소설의 첫 판은 오자 투성이었다. 게다가 출판되자마자 영국과 미국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사람들은 너무나 할 것이 이 소설을 찾았으므로 이 책은 파리 등지에서 해적판이 수십 판에 걸쳐 판매되었고 소위 잠잠한 사람들의 침실 베개 밑에도 숨겨진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로렌스에게 돌아온 것은 물질적인 이득이 아니라 그의 작가정신을 아프게 하는 비난과 악명이었다.

이러한 수난은 1960년에 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작가 로렌스가 타계한지 이미 30년이 지난 후였다. 이 소설이 출판된 지 32년이 지난 1960년에 영국의 펜출판사가 이 소설을 악명 높은 장면을 삭제하지 않은 채, 원작 텍스트 그대로 출판하기로 결정하였고, 영국의 외설법 검열관은 이에 대응하여 펜출판사를 고소하였다. 그 결과 외설물 시비를 가리는 재판이 6일만에 걸쳐 열렸다. 사회 인사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와 이 소설의 예술성을 옹호하는 진술을 했다.

이 중에는 문학비평가, 저술가, 문화 비평가, 대학교수 등 무려 35명에 이르는 사상가들이 소설 텍스트에 관한 감사의 집요하고도 세세한 질문에 답하며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증언했다. 배심원들이 이들의 증언을 듣기 앞서서 이 소설을 읽을 때에는 매우 엄격히 제한을 받아 그들은 책을 집에 가져가지도 못하고, 재판관이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서 각자 떨어져서 읽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채털리 부인의 연인'

을 숙독한 배심원들은 일주일에 걸친 증언을 들은 후에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결과는 외설물이 아닌 예술적 통일성을 지닌 작품으로 인정받아 그 이후 이 소설은 원작대로의 텍스트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 이후 이 소설은 많은 비평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소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과거의 평가 과정의 영향을 받아 이 소설이 유행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는 문제가 되었던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의 묘사가 분명 에로티시즘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주의의 구현이라고 주장했다. 또는 이 소설을 산업주의에 대항하여 인간의 몸매에 바탕한 인간주의의 텍스트로 읽기도 했다. 최근에는 학문이 자연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텍스트로 읽고 있기도 하다.

사실 이 소설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환경 파괴적인 산업사회와 자연적 삶의 양식이 대칭을 이룬다. 구체적으로는 테버샬(Tevershall) 탄광마을과 래그비 저택(Wragby Hall)이 산업주의의 기계적인 삶을 대변하며 이에 반하여 그 주변을 에워싼 래그비 숲이 자연과 유기적인 삶을 대변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비는 가시적인 외형적인 환경에 그치지 않고 인물설정에서도 드러난다. 래그비 저택과 테버샬 탄광의 소유주인 클리포드 채털리 경(Sir Clifford Chatterley)은 반생태적인 인물이고 반면에 래그비 숲의 사냥터 지기인 올리버 멜러즈(Oliver Mellors)는 친환경적인 인물로 설정된다.

이러한 배경과 인물설정을 토대로하여 르네상스 이후 서구사회를 주도해온 인간중심주의 사유가 배태한 문명이 얼마나 반자연적이며 반생명적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소설의 화자(narrator)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근본적으로 비극적인 시대인데 그 이유는 인류사회에 대재앙이 닥쳤을 뿐 아니라 이를 비극적이라고 인정하기를 현대인이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 후자에 속하는 인물이 바로 클리포드와 같은 '프로메테우스적 인물'만을 신봉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에게 자연은 인간의 이득

을 위해 정복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로렌스는 화자의 눈을 통해 여주인공 콘스탄스(코니) 클리포드가 이러한 대재앙의 상황에 처해있음을 밝힌다. 그녀가 클리포드와 결혼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자마자 일차대전이 터지고 남편은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허반신이 불구가 된다. 로렌스는 이러한 클리포드의 허반신 마비와 그와 같은 계층의 대부분의 인간들의 보다 깊은 정서적이고 열정적인 마비를 상징한다고 말해 그의 불행이 단순한 일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음을 시사했다.

클리포드는 허반신 마비를 당하는 와중에서 '그 안의 무엇인가가 사멸되었고 감정적인 면이 사라져 무감각한 공허가 생겼음'을 깨닫는다. 산업문명을 추진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과학과 기술이 육체가 배제된 이성의 산물임을 상기할 때 클리포드의 허반신 마비는 산업문명의 특성을 단적으로 상징한다.

남편의 마비된 허반신을 가슴으로 끌어안아 그의 몸을 들어 다른 활체에 어울고 책을 읽어주는 등의 일상생활을 반복하던 코니는 자신에게서 점차적으로 생명력이 소진됨을 감지한다. 래그비 저택과 탄광촌의 광부들 사이의 진정한 교류가 부재한 현상은 이들 부부 사이에서도 생긴다. 남편은 코니에게 래그비 숲과 저택을 물려줄 아들을 낳아주기를 원한다. 그에게 그 아기가 누구의 아가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코니가 겪을 인간적인 유대와 관계는 단지 기능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클리포드에게 아기는 그것(it)으로 지칭되어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되지 않음을 드러낸다.

코니의 유일한 피난처는 래그비 숲이 되고 그 속에서 태고적 우수를 느끼며 위안을 받는다. 그녀가 산지기인 멜러즈가 끄는 썰과 갖깨어난 그 새끼들을 보면서 이와 대조되는 자신의 황량한 삶에 울음이 솟구친다.

이러한 그녀를 멜러즈는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레 사랑을 나누게 된다. 멜러즈와의 관계는 그녀가 남편과 갖는 무생명적인 메마른 삶과 대조적이다. 그녀가 멜러즈와 처음 육체적 관계를 가진 후 그녀에게 비친

숲은 더 이상 죽은 듯한 잿빛의 것이 아니다. "저녀 부슬비가 내리는 숲은 적막했으며 은밀했다. 숲은 신비로운 빛을 띠고 갓 피어오르는 꽃들로 가득했다. 지상의 초목들은 초록색깔을 입고 흠뻑거리며 함창을 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숲에 대한 인식은 그녀가 멜러즈와 갖는 성적 관계가 중단할 때 우주적 의식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바로 이 경지가 생태학적인 조화와 공존의 관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로렌스는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에서 우주와 같은 리듬을 타는 생명력의 발로를 읽어낸다. 코니가 성교의 절정에서 내치르는 외침은 습막히는 래그비 저택을 벗어나 열려있는 미지의 자연 세계와 합일하는 재생의 목소리이다.


이들의 육체적인 관계를 로렌스는 마치 우주적인 리듬을 타는 파도의 신비스런 물결로 묘사했다. "마치 [코니는] 바다 같았다. 검은 파도만이 커다란 물결을 지으며 넘실거렸고 그녀의 검은 물결 전체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어둡고 소리 없이 물결치는 커다란 대양이었다. 아, 그녀의 저 깊은 곳에서 심해가 갈라지고 길고도 멀리까지 뻗치는 물결을 지으며 넘실거렸다...그녀의 몸은 더 깊숙이, 깊숙히 까지 드러났고 더 큰 그녀의 파도가 어떤 해안까지 밀려갔다...마침내 갑자기 부드럽게 떨리면서 그녀의 원형질의 알맹이가 만져졌다...절정이 이루어졌고 그녀는 사라졌다. 그녀는 사라졌고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한 여자로 태어났다."

이러한 언어적 표현은 사실 성적 황홀경을 묘사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러나 로렌스는 이러한 성적 관계에서 일·개인의 육체적인 만족을 에로티카하게 묘사하는 차원에 머무른 것이 아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육체가 우주적 조화의 원천임을 전달함에 있다. 로렌스는 에로티시즘의 작가가 아니다. 그는 인간의 육체야말로 기계적인 산업사회의 폭력을 이겨낼 유일한 방도이며 친자연적인 참 삶을 열어주는 인간적 길임을 갈파하고 있다.

김정배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이 상원 식품자원경제학과 감사
사상가 이야기

경기정리법 실시와
그 기술자 양성의 선구자
우에노 에이자부로
(1871-1925)



본 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일본에서 식량증산의 필요성에 의해 새로운 농업형태의 이념 내지 기술을 학문으로 완성함과 아울러 기술자 양성에도 주력한 上野英三(우에노 에이자부로, 1871~1925)라는 지식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일본의 논밭은 크기와 형태가 불규칙하고, 농가별 소유형태가 분산되어 합리적인 농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농지에서의 효율적 노동이 어렵고 작물의 수확은 낮아 농업 종사자들의 삶은 풍요로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농업의 토지 및 노동 생산성과 농지의 보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방안이 우에노가 주력한 경기정리법, 논밭의 구획정리나 배수, 관개 시설, 객토작업, 농로개설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우에노는 1895년 동경농과대학 농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거쳐 동경제국대학에 근무하면서 농사무성, 내무성의 경기정리, 토지개량사업에 참여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우에노는 1899년 경기정리법이 제정된 후 농업토목학을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이것이 농업토목학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우에노는 1895년 동경농과대학 농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거쳐 동경제국대학에 근무하면서 농사무성, 내무성의 경기정리, 토지개량사업에 참여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우에노는 1899년 경기정리법이 제정된 후 농업토목학을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이것이 농업토목학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이후 우에노는 1907년 경기정리연구회를 설립하여 회보를 발행함과 아울러 1911년, 동경제국대학에 농업토목학과를 개설하여 경기정리학을 체계화하였다.

우에노의 업적은 경기정리법 실시와 그 기술자 양성에 있다. 교육면에서는 우선 동경제국대학에 농업토목과정을 창설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동경대학의 농업공학과(생물·환경공학과로 개칭)의 전신이다.

또한 교육자로서만이 아니고 농사무성 관련사업의 기술자로서도 명성을 얻으며 하천개수, 치수사업, 식량증산계획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였다. 즉 우에노는 경기정리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경기정리기술자를 양성하면서 대학 교육만이 아닌 경기정리사업의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위해 경기정리강좌·농업공학교과서와 같은 교과서도 다수 저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한 WTO체제 출범으로, 보호와 보조에 의존했던 농업이 새로운 무역체제하에서 범 지구경쟁에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국과 비교해 농산물 가격 등에서 열세에 있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현행 농업형태로는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 농업이 생존을 위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에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주요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어려웠던 일본농업에서의 우에노의 역할과 같이 우리의 농업을 새롭게 발전시킬 농업활성화방안이 학문적으로 완성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대회 17·18세기독서문화와 문화변동 연구

지난 9일 이화여자대학교 2004년 한국문화연구원 학술대회 '17·18세기 동아시아의 독서문화와 문화변동'이 열렸다. 이는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 지원과제인 '17·18세기 조선의 독서문화와 문화변동 연구-외국서적 수용을 중심으로'의 1차년도 연구발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학술대회는 △ '일지록'에 내포된 중국실학의 정치적 의도와 조선으로의 유입과정 △명칭대 출판문

화와 관화서적 △17·18세기 조선의 서양교육 관련 서학사의 독서와 서양교육의 이해 △18세기말 서울에서의 명칭서적 유통의 실태 △서양전래의 서적정보와 시각문화의 변모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건의 독서문화에 관해 얘기된 이번 토론회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1발표는 '일지록'에 내포된 중국실학의 정치적 의도와 조선으로의 유입과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발표자인 윤대식 총남대 아시아지역 연구소 연구원은 고

려무는 명의 멸망 원인의 하나가 성리학이 본래의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상실하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원리로 변질된 점이라고 생각했다며 "멸망한 명나라의 사인이었던 고령무의 일지록이기 때문에 실패한 통치기계의 원인 분석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을 말하는 정치개혁론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3발표 '17·18세기 조선 사대부의 독서 양상과 한역서학사를 통한 서양교육 이해'에서는 17세기에 받아들인 서학과 19세기 북학과 실학 지성들이 받아들인 서학은 내용상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발표자 차비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원은 "17·18세기에 조선에 전파

된 서학은 포교 목적의 학문이었기 때문에 서양교육이 지식위주의 지엽적인 문제만을 가르친다 비판받았지만 19세기 이후의 서학-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부터 여자들이와 장애자의 교육 확대-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며 사대부들 사이에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17·18세기 조선은 외국 문화에 대해 주체적이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열린 나라였던 것이다.

총장장학 제도 개선 설문조사 시행

본교의 총장장학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학생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설문조사 기간 : 2004.4.7(수) - 2004.4.30(금)
2. 대상 : 본교 재적생 (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
3. 조사방법 : 본교 홈페이지에 설문내용을 게시하여 시행
4. 기타 : 설문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처

총장장학 수혜대상 현황 공고

2004학년도 제1학기 총장장학 수혜대상 학생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총장장학 제도 안내
 - ◆ 총장장학이란 학생회 중앙기구 및 단과대학 학생회, 신문/방송 기자학생 등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 ◆ 총장장학 수혜대상(금액) 현황
 - ☞ 학생회 간부학생
 - 총장1(등록금 100%) : 총학생회장/부회장, 총대의원회장
 - 총장2(등록금 72%) : 총학 간부, 총대의원회 간부, 총학생회 회장/부회장, 표준위원장, 동아리연합회 회장/부회장, 단과대 학생회장/부회장, 단과대 대의위원장, ROTC 명예위원장, 응원단장/부단장 등
 - 총장3(등록금 36%) : 표준위 간부, 동연분과장, 학과 학생회장
 - 총장4(60만원) : 총학생회 간부, 교지편집위 간부, 동아리연합회 간부, 단과대 집행부 등
 - 총장5(30만원) : 학과대표
 - ☞ 신문사(영자 포함) 및 방송사 기자학생
 - 3학년 : 등록금 72% + 학비보조금(신문사: 매월27-25만원, 방송국 부장: 13-11만원)
 - 2학년 : 등록금 36% + 학비보조금(신문사: 매월20만원, 방송국은 미지급)
 - 1학년(2학기) : 신문사(등록금 30% + 매월 10만원), 방송국(40만원)
 - ◆ 총장장학 수혜 기준: 직전학기 17(15)학점, 2.0 이상
2. 수혜대상자 공고범위 :
 - 총장(1), 총장(2), 총장(3) 장학금 수혜학생

학 생 처

2004-1 총장장학 수혜대상 현황

no	장학명	학과/전공	학년	성명	비 고
1	총장(2)	역사학과	4	최무미	총학생회 문화국장
2	총장(2)	신문방송학전공	4	이국찬	총학생회 사무국장
3	총장(2)	정보관리학전공	3	박소혜	총학생회 선전국장
4	총장(2)	반도체과학전공	4	주상훈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
5	총장(2)	신문방송학전공	4	유재현	총학생회 체육부장
6	총장(2)	경제학전공	4	조성현	총학생회 학술부장
7	총장(2)	토목환경공학전공	4	지준식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
8	총장(2)	독일학과	4	이동철	동아리연합회장
9	총장(2)	선학전공	3	김기찬	기초사상장
10	총장(2)	불교학전공	4	김재동	불교대학 학생회장
11	총장(2)	불교학전공	4	박동훈	불교대학 부학생회장
12	총장(2)	불교학전공	4	최민영	불교대학 대의위원장
13	총장(2)	사학전공	3	최이영	문과대학 학생회장
14	총장(2)	중어중문학과	4	김동우	문과대학 대의위원장
15	총장(2)	화학전공	3	이학근	이과대학 학생회장
16	총장(2)	수학전공	3	곽진영	이과대학 부학생회장
17	총장(2)	법학과	4	조진우	법과대학 학생회장
18	총장(2)	법학과	3	김진주	법과대학 부학생회장
19	총장(2)	건축학전공	3	남경민	공과대학 대의위원장
20	총장(2)	컴퓨터공학전공	3	김영준	정보산업대학 학생회장
21	총장(2)	정보통신공학전공	4	김원진	정보산업대학 대의위원장
22	총장(2)	국어교육과	4	김용환	사범대학 부학생회장
23	총장(2)	국어교육과	4	유종민	사범대학 대의위원장
24	총장(2)	영화TV전공	4	이진영	예술대학 학생회장
25	총장(2)	정보통신공학전공(야)	4	김윤경	이과대학 학생회장
26	총장(2)	새무계학전공(야)	4	채정식	야간강과 부학생회장
27	총장(2)	경영학전공	4	김진우	ROTC 명예위원장
28	총장(2)	기계공학전공	4	이승훈	공과대학 학생회장
29	총장(2)	전자공학전공	3	안지선	응원부단장
30	총장(2)	건축학전공	2	이영규	동아리연합회 봉사부과장
31	총장(2)	회계학전공(야)	2	임원규	동아리연합회 사회봉사과장
32	총장(2)	경제학전공	4	오종섭	동아리연합회 연구부과장
33	총장(2)	컴퓨터공학전공	3	김주희	동아리연합회 예향부과장
34	총장(2)	철학행정학과	3	김동우	동아리연합회 체육부과장
35	총장(2)	정치외교학전공	3	고은경	동아리연합회 학술2부과장
36	총장(2)	정보통신공학전공	4	손성진	동아리연합회 학술2부과장
37	총장(2)	토목환경공학전공	4	유민수	졸업준비위원회 사무국장
38	총장(2)	정보관리학전공	2	김동주	졸업준비위원회 정보국장
39	총장(2)	체육공학전공	2	유미경	졸업준비위원회 홍보국장
40	총장(2)	생명 화학공학전공	2	이동윤	불교학전공 구도부장
41	총장(2)	전기공학전공	3	이창원	불교학전공 단장
42	총장(2)	불교학전공	3	장홍찬	불교학전공 학생회장
43	총장(2)	인도철학전공	4	김주희	인도철학전공 학생회장
44	총장(2)	선학전공	4	최민영	선학전공 학생회장
45	총장(2)	사학전공	4	윤성로	사학전공 학생회장
46	총장(2)	철학전공	3	신승우	철학전공 학생회장
47	총장(2)	유리문화학전공	3	권혁진	유리문화학전공 학생회장
48	총장(2)	국어국문학전공	3	최호승	국문학전공 부학생회장
49	총장(2)	영어영문학과	3	최현정	영어영문학전공 학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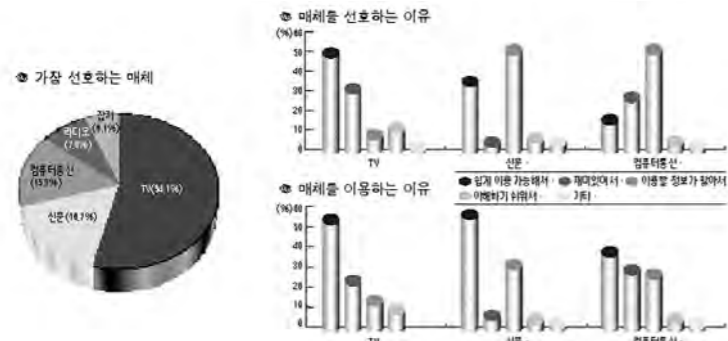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학술 기고를 받습니다. 원고지 8~10매 분량의 간추린 논문이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글을 기다립니다. 자격이나 분야는 제한이 없고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료를 드립니다.

설문조사로 알아보았던 동대인의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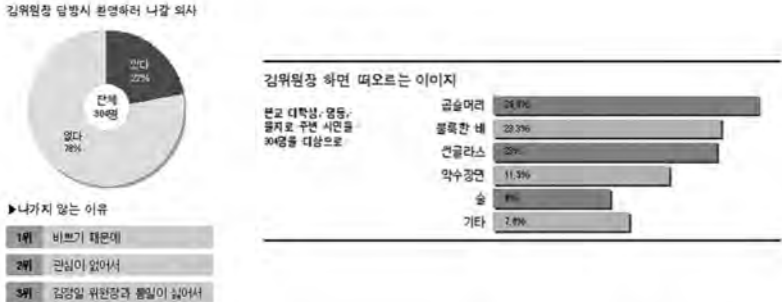
독자 곁에서 함께한 지난 54년

제1270호 1999년 4월 12일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매체관련 설문조사"



본교생 중 서울캠 학생 198명과 경주캠 학생 97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매체를 조사한 결과 54.1%로 TV가 1위, 16.7%로 신문이 2위를 차지했다. 이들 중 대부분의 학생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TV를 선택했다. 이 외에 동대신문에 대한 홈페이지 인지도는 72.8%로 더욱더 활발한 홍보가 요구된다.

제1316호 2001년 4월 9일자 "통일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의식을 본교생 및 본교 주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001년 예정이었던 김정일 위원장 담방을 맞아 환영나갈 의사를 묻는 질문에 나가지 않겠다 22%, 나가지 않겠다 78%로 나타났다.

제1329호 2001년 10월 29일자 "우리가 바라는 학생회에 관한 설문조사"



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바라는 학생회'라는 주제의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48.66%의 학생이 관심없다고 답했고, 사업에 대한 참여도 역시 52.02%의 응답자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1334호 2002년 1월 1일자 "대선관련 정치인 지지도 설문조사"



본교생 4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관련 정치인 지지도 조사결과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정몽준이 2.42%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노무현 2.34, 이인제 2.31 등이 뒤따랐다. 이는 그 당시 행해졌던 대부분의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와 달랐다. '정치인 000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90.6% 지만전 김중필 총재가 88.7%를 기록했다.

동대신문 역사

동대신문은 해방직후인 1947년 '동국일보'라는 타블로이드 4면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지면에 실린 논문 몇 편이 정치적으로 불순하다는 점 등으로 배부되지도 못한 채 압수됐고, 동국일보는 발행이 중지된다.

그리고 4년 뒤인 1950년 4월 15일 대판 4면 체계를 가진 동대신문 창간호가 발행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해 6월 2호 조판 중에 6·25가 발발해 발행이 중단되었다.

이후 1952년 6월 피난지인 부산에서 어렵게 타블로이드 4면의 2호를 발간하게 되었지만 조연현 동문의 '동국대학교 나'라는 글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배부되지 못한 채 보일러실에서 불태워지고 만다.

결국 피난 생활을 접고 서울로 돌아온 1953년 4월, 양주동 교수의 지도로 3호부터 타블로이드 4면의 동국일보를 속간했고 1954년 6월 20일 공보실로부터 정기간행물 291호로 허가받는다. 또 1960년 10월 주간제를 두고 초대주간에 정태용 동문이 취임했으며, 1961년 7월 5일 '개재 가는 운동장의 꿈'이라는 대학신문 최초의 호의를 발간했다.

동국일보는 1955년 7월 7일 '동국일보'로, 다시 1962년 7월 6일자에 이르러 '동대신문'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동대신문은 1963년 학생들의 학술연구결과 창작의욕을 한층 더 북돋아 참신한 학풍을 수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동대학살상을, 또 10대 문학도의 의욕을 북돋아 한국문단의 내일을 풍요롭게 하려는 생각으로 전국고교생 문학공부를 각각 제정했다. 1965년에는 영자신문인 동국포스트를 자체지로 인수, 한 가족이 되었으며 1979년에는 경주캠퍼스에 신문사를 개설하여 경주캠의 소식을 보다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80년대에는 대학언론 역시 자유롭지 못해 '전두환'의 '전' 자만 실려도 배포중지될 정도였고 본지 765호(80년 5월 13일자) 1·2면에 실린 유신독재 반대 각계 시국선언문을 주요내용이 삭제된 채 여백을 남기며 게재된다.

또 4·19기념호로 발간 예정이었던 853호는 당시 시위기사와 4·19의 민주정신을 기리는 동우담 추모행사, 4·19와 관련된 사실이 문제시되어 배포 금지당하기도 했다.

이런 탄압 속에서도 1986년 들어 기존 학술상에 포함되어 있던 창작문학상을 동대문학상으로 독립시

켜 그 위상을 한층 높였으며, 1988년 9월 13일에는 전국 대학들 중 여섯 번째로 지령 1천호를 발행하는 과업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난 96년 10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여과없이 실는 낙서판인 '소나기'는 무장간첩침투사건에 대해 다루었고 이에 대해 이적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당시 편집장과 관련기자 1명을 구속했으며, 이로 인해 약 한달 동안 신문이 발행 되지 못하는 위기가 있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98년도 1학기부터 동대신문은 자체 조판이 가능한 매킨토시를 구입했고 원고 작성부터, 입력, 편집까지 전 과정을 신문사에서 작업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지면이 아닌 모니터를 통해 동대신문을 만나볼 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 1999년에는 기존 한문제호를 한글제호로 바꾸고 8면과 12면의 교차발행을 실시해 더욱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는 신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신문사는 처음 본관 1층에 위치했으나 1972년 2월 사무실을 학생회관으로 옮겼고 올해 2월 V동 1층으로 이전한 상태다.

동대신문의 변천사



▲ 창간호 (50년 4월 15일) 개재된 몇 편의 논문이 정치적으로 불순하다는 이유로 배부되지 못하여 1950년 4월 15일에 대판 4면 동대신문이 창간했다.



▲ 호의 제1호 (62년 7월 5일) '동대신문' 제호를 달고 대학신문사상 최초의 호의를 발행한다.



▲ 제765호 (80년 5월 13일) 검열과 삭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절 기사가 적혀있어야 하는 지면이 어떻게 비어있다.



▲ 제1000호 (88년 9월 13일) 창간 38년 만에 지령 1000호를 맞이한다.



▲ 제1012호 (89년 3월 1일) 창간 이래 견지해온 세로쓰기를 버리고 독자의 요구에 맞추어 가로쓰기 편집체제로 새롭게 태어난다.



▲ 제1265호 (99년 3월 1일) 한글로 제호를 변경, 주제기획면과 신설하고 첫면과 끝면을 컬러 인쇄하며 12면·8면을 교차로 발행한다.

동대신문과 함께한 광고들 "이런 광고 보셨습니까?"

특별 별책부록 ① 가장 확실한 정보 자세한 가이드 '83 바캉스 완벽 가이드

특별 별책부록 ② '83 최신 바캉스 컬러지도 (휴대용)

제862호 1983년 7월 9일 7면에 실린 광고.

지금쯤 몽골의 계절

해태유업(주)

제771호 1980년 10월 21일 4면에 실린 광고.

해태가 만드는 새로운 유산균 발효유

해태유업(주)

제671호 1977년 3월 29일 3면에 실린 광고.

OB생맥주를 권하는 몇가지 이유

OB생맥주

제750호 1979년 10월 9일 2면에 실린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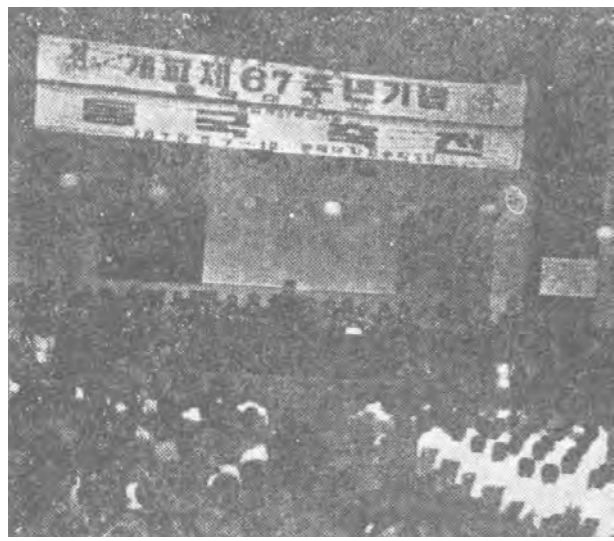
참, 나왔어요!

87년도를 주목할 만한 수성볼펜의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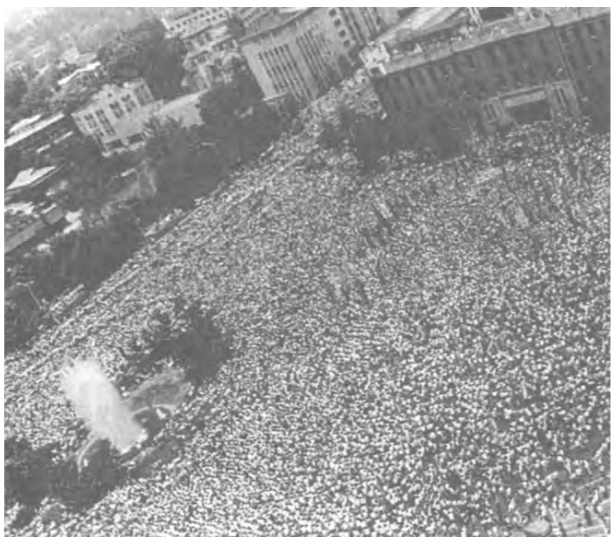
펜텔 에너젤

제960호 1987년 3월 17일 5면에 실린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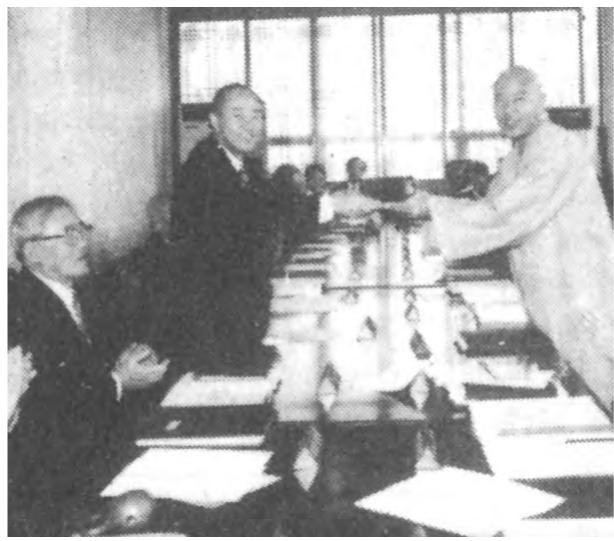
사진기사로 본 역사의 현장 그 현장 속에는 언제나 동대신문사 기자가 있었다



▲ 제 549·550호 1973년 5월 8일자. 지난 73년 5월 8일 개교 67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 제970호 1987년 8월 25일자. 지난 87년 7월 9일 이한열 군 장례식 때 시청앞에 모인 애도 인파.



▲ 제1195호 1995년 3월 18일자. 지난 95년 3월 18일 저금통에 동국사랑을 채워 동국발전기금을 하고 있다.



◀ 제1164호 1995년 1월 1일자. ('사진으로 본 1994' 중) 지난 94년 8월 19일 이 시장의 총장 직선제 관련 발언으로 학내 구성원들이 고조된 상황.



▶ 제1317호 2001년 4월 16일자. 지난 01년 4월 14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교 학생회는 연등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창간특집! 우리들의 가상뉴스

창간 59년에는
오는 0일부터 교내 5곳에 설치된 전자계시판에 동대신문의 단신 위주의 기사가 주로 실리게 된다.
이번에 설치된 전자 게시판은 가로 70cm, 세로 50cm의 크기의 대형 게시판으로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보다 쉽게 정보를 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전자 게시판에는 동대신문의 기사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정보나 행사 광고 등의 유용한 생활 정보도 실린다. 또한 독자광고도 정보관리실에 요청하면 실을 수 있다.

창간 64주년에는
오는 4월 0일부터 본교 캠퍼스 전 구역

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운행된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3호선 동대입구 역에서부터 시작해 본교 캠퍼스를 거쳐 4호선 충무로 역까지 이어져 있는 것으로 약 2년여에 걸쳐 완공됐다. 이번 공사는 남산 중턱에 있는 본교의 특성상 경사진 곳이 많은 캠퍼스를 불평하는 학생들의 요구로 설치됐다.
이로 인해 본교는 서울의 수많은 관광 명소 중 한 곳이 됐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꿈만 같다. 우리학교에 정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학생도 있고, "우리학교가 아닌 것 같다. 학교와 에스컬레이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본교를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범학교로 지정해 매년 5억의 지원을하기로 결정했다.

창간 80주년에는
본교 축구부, 야구부, 농구부가 최근 들어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구부는 지난 5년간 한번도 대학농구대회에서 우승을 놓치지 않아 대학농구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본교 농구부는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구부 전용 농구장을 가지고 있으며 두꺼운 선수층과 강인한 체력이 장점이다. 특히 주전 선수 5인방은 실업팀들과의 연습경기에서도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여 신인 드래프트 1순위에 포진되어 있다.

창간 100주년에는

2050년도 3월 중앙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전국대학 평가에서 본교가 1위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46년 동안의 꾸준한 성장의 결과로, 이로 인해 학교는 축적 분위기다. 과거 명문 3대 사학의 명성을 되찾는데 이어 더 나아가 제1의 사학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쾌거를 이루기까지 본교는 학내 3주체가 단합해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교수를 대폭 충원하고 학생 정원을 줄여 교수 1인당 학생수를 10명 안팎으로 조정했다. 또한 의정부에 제4캠퍼스를 지음으로써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간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배로 높여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학교의 수준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동대신문 기자가 말하는 '나의 한주일' "한주간의 피로 '신문'과 함께 날려"

월요일 정오 즈음 이번주 동대신문이 나왔다. 언제나처럼 신문이 나온 뒤의 펼쳐보는 뿌듯함을 느끼며 하나하나 읽기 시작한다. 신문에 오자는 없는지, 색깔은 제대로 나왔는지, 그리고 미처 내 일을 하느라 못 본 신문의 다른 면들을 읽어본다.

오후 6시, 각 부서별로 지면평가를 한 뒤 전 기자들이 회의실에 모여 평가회의를 시작한다. 평가회의 때는 지면 평가와 더불어 지난 일주일동안 신문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 서로에게 생각했던 점 등을 함께 말한다. 일에 쫓겨 서로에게 소홀했다면 이 자리를 통해 풀면서 기자들의 친목을 다진다. 평가회의 시간에는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는 나의 지난 일주일을 다시 깨우쳐 볼 수 있어 좋다.

내 화요일 수업은 정오가 되기 전에 모두 끝난다. 출입처 취재를 위해 일주일 시간표를 그렇게 조정했다. 내 출입처는 13개. 모두 취재하는데 두세 시간이 걸린다. 이제는 출입처 취재원들과 많이 친해져서 취재이외에도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편이다. 출입처를 방문 하면서 한편으로 계속 회전문대 아이템을 생각한다. 학내 곳곳을 두리번거린다거나 무언가 '길새'가 좋지 않아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은 모두 이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다.

저녁을 먹은 후 오후 7시가 되면 취재회의를 한다. 각 기자들이 모두 출입처를 들고 취재한 것을 보고하는 회의다. 두시간정도의 취재회의 후에는 배정된 단신과 회전문대를 쓰느라 정신없다. 단신과 회전문대 마감이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수요일 아침은 특히 일간지나 잡지를 유심히 본다. 왜냐하면 이날 오후에는 다음호 편집회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호 만드는 신문 확인회의도 함께 있다. 편집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각 부서별로 다음호에서 다룰 아이템을 선정, 탐을 짜고, 필자와 매수 등을 정한다. 이후 시작하는 편집회의는 이렇듯 부서별로 정한 다음호 아이템을 전 기자들에게 보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회의다. 그리고 확인회의 때는 이번 주에 만드는 신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확정된 사안을 보고한다. 지난 편집회의 때 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첨부하는 것은 물론, 변경 사항 등도 함께 이야기 한다.

이제 각각 할당된 기사를 쓰는 일만 남았다. 금요일은 기사 마감 날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목요일부터 취재에 바쁘다. 그리고 그동안 마감하지 못했던 단신과 회전문대에 대한 압박도 점차 나를 짓누른다. 기사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전체적인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금요일에도 화요일처럼 오후수업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학기 금요일 오후수업 중 대부분을 빠졌기 때문이다. 금요일은 기사마감 날이어서 만약 취재가 부실하다면 취재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요일 오후부터 나는 자리에 앉아 기사를 작성한다. 편집계획 취재에 적힌 내 기사와 이름이 빨리 지워지길 바라며 기사 작성에 여념이 없다.

토요일 아침, 밤새 기사마감을 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자 무척 피곤하다. 지면에 기사와 사진, 컷 등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레이아웃을 그리고 맥실에 들어가 직접 초안을 잡는다. 처음 판을 출력하고 다시 기사의 제목을 뽑고 오자를 본다. 이런식으로 초판, 재판, 삼판까지 확인한 뒤 주간님의 O.K가 날 때까지 확인한다. 판이 모두 나와 벽에 붙여놓았을 땐 참 뿌듯하다.

어느새 일요일 아침이다. 이를 동안 잠을 거의 못자 정신이 몽롱할 뿐만 아니라 몸도 무척 피곤하다. 하지만 또 한 주를 치열하게 살아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신감은 지난 한주동안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준다.

최민희 기자
mini0705@dongguk.edu

다시 돌아보는 '만평'



80년도 12월 2일자 제776호에 실린 '진정한 초석이 되길...' 만평. 동국발전 중·장기계획에 대해 시사해주고 있다.



83년 2월 22일 자 제845호에 실린 '졸업은 했는데...' 만평. 졸업생들의 힘든 취업현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87년 5월 19일 자. 제967호에 실린 '주류와 동창식(?)' 만평. 대동제가 문화축제가 아닌 술의 축제로 변화된 현실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91년 3월 13일자 제1106호 실린 '등록금' 관련 만평. 재단 전입금 부족을 문제로 제기하며 이에 대한 확충을 시사하고 있다.



95년 9월 25일 자 제1182호에 실린 '교육개혁' 관련 만평. 교육개혁을 위해 교수, 학생, 교육부에서 서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모습이다.



99년 1월 1일 자 제1263호에 실린 '일본문화개방' 관련 만평.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영화애니메이션 등으로 문화개방을 하도록 유혹하는 모습이다.

동대신문 발전을 위한 동인의 제언

위기를 기회로 거듭나라

역할과 위상정립 위해 노력하길 기획위구성 편집국 강화 필요

동대신문이 창간 54주년을 맞는다. 잔치날에 동대신문의 앞날을 걱정해야 하니 우울할 뿐이다. 민족 동대의 햇불이며 노래이며 숨결이었던 그 옛날의 위용은 어디로 갔기에 '동대신문의 위기'를 운운하는가.

학내 사정에 밝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동대신문을 논한다는 것이 어찌면 치기로 비쳐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동대신문사에서 고뇌하고 사색했던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동인의 한사람으로서 오늘의 위기를 그냥 지나칠수 없기에 감히 기고를 결심하게 되었다.

동대신문을 격주간으로 발행하고 부수도 줄인다는 학교 당국의 발언이 학기초에 대두됐다. 가슴아픈 일이다. 신문 질이 떨어지면 그 질을 높이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 아닌가.

아무도 그런 것에는 관심을 쏟지 않는 것 같다. '동대신문의 위기'는 격주 발간 제의로 불거진 어찌보면 동대신문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호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동대신문은 거듭나고 학교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대신문이 되길 기대한다.

동대신문의 위기

우리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변하고 있다. 대학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정의와 진리만 외치면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던 '고고한 시대'는 지나갔다. 세계화라는 이름의 거대한 자본의 물결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다.

우리 대학사회도 자본논리에 휩쓸려 기존의 좌표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언론도 이런 물결에 의연할 수는 없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흐름과 세태를 담아내야 한다. 70년대에는 아카데미즘, 80년대 저널리즘에 충실했다면 90년대는 이념이 신문제작의 중요한 인자가 되었고 이제 새 천년을 넘어와서는 엄청난 변화 속의 정보를 담아내기에 바쁘다.

솔직히 거의 모든 대학신문들은 이런 시대변화에 자기위상과 역할을 찾느라 내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

여진다.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대표되는 대학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혁명적 변화는 주간으로 발행되는 대학신문의 입지를 갈수록 축소시킬 것이다.

갈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영성한 취재시스템, 아마추어적 기자 소양, 부실한 지원으로는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지면을 제작하는 데 원초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대학언론의 변화, 대학 사회의 변화

창간 54주년을 맞는 동대신문도 마찬가지다. 대학사회의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고 나름의 좌표설정에도 실패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위기의 본질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가.

먼저 동대신문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뉴미디어의 등장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다양화로 대학신문의 설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대학사회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대학신문은 학교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동대신문 역시 '동국 중흥'이라는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 종합학교의 위상정립과 학교발전을 위한 재정확보, 학문연구와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동대신문은 건전한 비판세력이 되어야 하며 여론수렴의 장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제작, 편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일간지 기자들의 기획, 편집 능력만큼은 함들더라도 저널리스트로서의 기본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기획은 동국중흥에 맞춰야 하고 학내필진의 폭을 넓히고 교수, 학생, 직원, 동문, 교계 각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학생기자들의 재교육과 사회진출 프로그램화를 통한 재학생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학생기자들이 동대신문을 입사해 신문 제작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학금 제도 등 각 종 지원책은 물론이고 언론계로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생기자들이 자주 중도에서 떠나가는 풍토에서는 백일이 무효이다. 이들을 붙들 수 있는 어느 정도 진로가 보장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언론관 확립, 신문 제작 기술 습득과 함께 취업을 위한 교육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동대신문의 과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먼저 동대신문의 위상과 관련 학교 당국은 과감한 투자와 관심을 가지길 부탁한다. 신문사, 영자신문, 방송사, 교지로 나뉘어진 학내언론을 자기 역할과 역량에 맞게 재배치해야 한다.

현 6학기제 학생기자 운영 등 시스템도 개선해 학생기자들의 편집국 기능을 강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동인에게 편집국의 실무를 맡겨 편집국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중앙대의 성공사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자가 외면하는 신문은 존재이유가 없다. 학생기자들은 기획과 편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대신문의 문을 열어야 한다. 기획위원회 등을 구성해 신문의 편집방향을 논의하고 장기기획이나 필진으로 참여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또 신문 모니터제를 도입하여 지면의 감시체계를 구축해야한다. 학내 여론흐름과 제작실무를 잘 아는 동인들을 참여시켜 한 주 제작한 신문을 평가받고 다음 신문에 개선내용을 반영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기자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기자들의 안목을 높이고 전문소양을 쌓도록 도와야 한다.

현재 학생기자교육은 입사 후 6개월의 수습교육과 1년에 두 번 이루어지는 방학중 세미나가 전부라고 한다. 이런 정도로는 신문에 눈을 뜰 수가 없다.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외부 기관 위탁교육, 동문출신 언론인들에 의한 실무교육 등을 통해 학생기자로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

최근의 격주발간 논의에서 나타났듯이 동대신문을 보는 학교당국의 시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동대신문 발전을 위해 여론

수렴을 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시급히 마련했으면 한다. 학내 각 주체들의 동대신문에 대한 요구사항과 평가들을 청취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으는 공개적인 자리를 갖고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대신문을 학교홍보지로 격하시키려는 시도를 경계한다. 동대신문은 학교 홍보실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학내 주체들의 참여와 비판이 보장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물론 '동국 중흥'을 위해 학교신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방적, 무조건적 선전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느 조직이건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 하는 것이다.

비판과 토론이 수용되지 않는 일방향적 흐름은 학교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될 일이 아니다. 길게는 독이 될 뿐이다.

셋째 동대신문사가 언론계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장학제도와 지원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학교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동인들도 모교발전과 동대신문 혁신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동인들은 동인회 기금조성을 비롯해 동대신문 출신들이 중심이 돼 동국언론인회 조직과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후배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들에게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선, 후배의 만남을 학교당국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누가 뭐래도 동대신문의 혁신 주체는 학생기자들이다. 그들이 손을 놓고 사태를 방관하거나, 변화의 흐름을 놓치거나, 변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동대신문에 미래가 없다. 늘 열려있고 늘 깨어있어야 한다. 동대신문 54년은 위대했고, 앞으로도 위대하리라고 믿는다.

동대신문이 사람의 매를 맞고 사람 받는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시련이 있기에 더욱 탄실하게 자랄 것으로 믿는다.



김택곤
경향신문사 편집국 문화담당 부국장
(국문79졸, 본사 77년도 편집장)

대학신문의 콘텐츠를 찾자

동대신문 격주발행이 논란이 되었을 때, 현역기자들은 '신문(新聞)에 뉴스(news)가 없다'는 질타도 받아야했다. 선배의 애정어린 회초리였지만, 후배들은 매우 아팠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 만드는 동대신문은 주간 8면(혹은 12면)이기에 답을 수 있는 콘텐츠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거나 무심하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기엔 그 목소리가 가다가다 쪼개져있다. '동국발전'의 깃발을 높이 세우지만 그 또한 바람에 부대끼다.

그렇다면 오늘, 동대신문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렇듯 중요한 것이 올바른 가치 판단이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질' 알아야 한다. 팩트(fact)에 대한 자신감 위에 반성적 사고와 가치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중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한 비판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동대신문은 대학신문이다. 대학신문이기에 가능한 '젊음'을 스스로 포기한채 오히려 구태와 관습,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어 있지 않은지.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기자들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고민해야 하며, 건강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흥수에 물이 귀하다고 했다. 차고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동대신문이 '귀한신문'이 되기를 바란다.

김기영 교육혁신위원회 연구원
(교육99졸, 본사 97년도 편집장)



타 매체의 효율적인 이용 필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뉴미디어가 등장했을 때 신문은 사라질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기존의 매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매체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살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신문들은 새로운 매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면의 색채화, 증면, 인터넷과의 연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학내 역시 동대신문뿐 아니라 교지, 동국의 창, 동국 타임스, 동국 포스트 등의 인쇄매체와 인터넷을 활용한 웹진, DUBS 등 다양한 매체들과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동대신문은 과연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가져야하는가? 동대신문이 학내의 다른 매체들과 비교에 가지고있는 특징은 주간으로 발행되는 유일한 인쇄매체라는 것이다. 다른 인쇄매체와 비교할

때 정보전달이 신속하며, 교지, 동국의 창, 동국 타임스와는 달리 학내의 제주체들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수렴과 정보전달을 하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공신력 부분에서도 학내 매체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특성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지 신문기사만 업데이트하고 있는 동대신문 홈페이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속보성, 정보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신문 지면에서는 독자들이 학내의 사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심층보도 기사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신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덧붙여, 학내의 제주체들의 소식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면 할애를 통해 그들의 관심과 주목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태훈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신방03졸, 본사 97년도 취재부장)



교육제도 정립과 임기제 고민

신문사 생활 1년중 가장 설레고 긴장됐던 행사가 바로 수습기자 선발이었다. 그런데 어느덧 이는 동대신문사뿐만 아니라 대다수 대학신문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대학교의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신문사가 초고속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예비 사회인에게는 매력 없고, 3년임기를 다 채우기엔 기자들의 시간투자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두가지 제안을 해본다.

먼저 교육체계의 정립이다. 학기중엔 신문발행에 묶인 나머지 현역기자의 교육은 부재하다. 그나마 수습기자 교육은 일면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디지털세대인 수습기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현역기자 외의 교육주체를 정해 기획, 편집, 기

사작성 등의 교육제도를 마련하자. 또한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정립해 기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두 번째 3년임기제의 변화다. 3년임기제에 대한 남학생들의 부담은 여학생의 수적 우위로 나타나 고민 아닌 고민을 던져주고, 임기 이후 예비사회인으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 임기제도 변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기가 하지만, 4학기제와 5학기제로 바뀐 몇몇 대학은 기자수급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신문제작부분에서도 뒤쳐지지 않는다.

사람은 희망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동대신문사로 거듭나길 바란다.

곽주영 본사 편집간사
(통계97졸, 본사 95년도 취재부장)

동대신문에 바란다

아카데미즘과 아마추어리즘에 충실하자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어떠한 수준의 지식과 정보, 여론과 동향이라도 거의 공개되고 일반화된 현실에서, 동대신문이 여전히 대학의 중요한 언론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다하면서, 아울러 대학을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등 종래의 역할을 더 이상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대학 홍보도 이미 학교 당국이 독자적으로 제작해내는 '동국의 창'이나 '동국타임스' 및 웹진 등의 수단으로 충분히 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당국이나 구성원들은 동대신문의 존재가치 자체를 회의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대신문은 용도 폐기될 위기인가. 그렇지 않다. 새로운 동대신문의 정체성은 이전에 누려왔던 학내 정보의 독과점, 학생운동에 경향한 과잉된 이념 편향, 학교 홍보지 역할 수행 등의 부당관안주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어떻게 환골탈태할 것인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대학의 아카데미즘과 아마추어리즘에 더 충실하자. 등돌린 교수·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내야 한다. 학술·연구 정보의 다양한 안내, 학생들의 신선하고 신랄한 발언, 교직원들의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예각적으로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내에 일어나는 사건의 후속적 보도나 대중매체에서 이미 훑고 지나간

이슈에 대한 재탕, 어설픈 시사적 논평 등으로 어정쩡하게 나열하는 구색맞추기의 안일함을 극복하자. 다양한 독자 참여의 지면을 늘리고, 인터넷 서비스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의 과정과 성과에 관련된 정보를 동대신문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개해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애정을 가져주어야 한다.

이제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한결같이 동대신문을 위한 정보의 생산·제공자이면서 수용자로서 방관과 외면의 타성을 벗고 생산적 비판자가 되어주기 바란다.

아울러, 학생기자들의 자성과 역량 강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기자들의 개별적 자질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학교 당국의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유도되어야 한다. 동대신문은 학내 언론기관이면서, 한편으로 학생들의 교육실천의 현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대신문의 정체성이 희박하다는 질타와 폄하 이전에 진정한 대학 문화와 청년 문화를 창달하는 본래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학 당국과 전 구성원들이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독려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 순 열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학내구성원 필진발굴로 다양한 기사제작

몇 년 전에 출간된 배식한 씨의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이란 책을 보면 영구불변의 표상이자 세계의 진리와 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책에 대한 태도의 혁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이퍼텍스트로 이루어진 인터넷상의 문서는 저자와 독자가 구별되는 종이책과는 달리 누구나 읽고 쓸 수 있으며 고정되고 불변하는 대신 자의적인 편집이나 뛰어넘기가 가능하고 중심과 주변, 안과 밖이라는 경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탈권위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성신문들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신문의 어떠함? 이전 진부한 단어가 되어버린 '위기'라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하이퍼텍스트가 바꾼 대학공간의 개념 변화로 역시 심한 몰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대학신문은 대학공간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의미를 담고, 엮고, 해치는 담론적 실천의 장이다. 과거 대학의 공간이 저항과 투쟁의 공간으로 대학신문이 사회비판과 민주쟁취의 사상투쟁의 장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문연구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사회진출을 위한 노동재생산공간으로, 다양한 학구성원

들의 일상사가 엮여지는 생활공간의 장으로 변해서 이제 대학신문은 대학주체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소통의 장이거나 실험정신을 충만히 실현시킬 수 있는 멀티플레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결국 대학신문의 변화는 대학을 공간적인 시각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사유방식의 전환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동대신문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해 보면 첫째, 대학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기사의 작성과 편집에 수용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기사 작성을 확보사 정기자로서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다채로운 학생들을 '책임기자'로 선발해 참여시키거나 전공과 업무에 따라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들을 '전문기자'나 '칼럼니스트'로 발굴한다. 또 '학생통신원제도'를 신설하여 교환학생이나 유학생을 통한 다양한 문화와 해외 소식을 신는다. 둘째, 기술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기사 검색 서비스, 전자 게시판 활용, 방송국과 동영상 등을 통한 실시간 기사방송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동대신문 인터넷판 보장을 위해서 '웹기자' 선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 일 우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간 54주년을 맞아 동대신문 발전을 위한 학내구성원과 동인분들의 따가운 질책과 따스한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대신문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동국인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자들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학내 매체들의 다변화 속에서 동대신문이 과거와 달리 오피니언 리더가 되지 못하고 있고, 급변하는 시대흐름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해 독자들로 부터 점점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해나 동안 이어온 동대신문이 위기를 맞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는 동인들의 말씀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 학생기자들은 학내언론으로서의 역할과 '동국발전'이라는 대주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급변하는 시대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아가 시대흐름을 반박 앞서나가기 위해 기자들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해 아카데미즘을 충실히 담아내도록 하고, 편집역량을 키워 우리신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문물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동인들의 제안처럼 학내구성원과 동인이 기획이나 편집과 민을 함께 하는 신문사 '기획위원회' 구성도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발로 뛰며 교수와 직원,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더불어 이들의 관심사를 최대한 지면화해 등돌린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적 입장에서 수요자인 독자입장에서 신문제작에 임하고, 독자들이 만들어가는 신문임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 어느 매체보다 많이 이용되는 만큼 동대신문 홈페이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도의 신속성, 연속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창간 60주년 100주년이 지나더라도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바랍니다.

동대신문사 기자 일동

보이지 않는 변화 따라가는 노력 필요

벌써 54주년이다. 흔한 말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벌써 5번이상 세상이 변했을 시간이다.

세상은 신문의 중요한 정보원이다. 왜냐하면 신문은 그런 변화의 시간들을 담아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문은 선택을 한다. 많은 사건과 뉴스들 중에 어떤 일들을 신문에 실을 것이며, 어떤 시선으로 바라 볼 것이며 왜 실어야 하는 등의 의미들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곧 한 신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수많은 신문들 중에 동대신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동국대라는 대학사회를 담아내는 동대신문은 교수도 교직원도 아닌 학생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신문이다. 학생들과 좀 더 밀착된 거리에서 동일한 눈높이로 대학사회를 바라볼 수 있으며, 학교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굳이 '학교 신문은 이래야 한다'라는 지정된 사항이나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결국 '어느 대학의 신문'이라는 타이틀은 어떤 신문의 이름보다 그 신문에

대한 정체성과 역할, 나아가 신문의 내용까지도 가능케하고 결정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신문은 다분히 아마추어리즘의 냄새를 풍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프로들이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과 오만함을 피할 수 있는 결손환과 순수한 열정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대학 신문들 속에서 동대신문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다른 어떤 동국대 전체이다. 동국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동대신문의 무대이다.

결국 대학사회의 변화를 가장 충실하고 신속하게 담아낼 신문이 바로 대학신문인 것이다.

이제 겨우 54주년이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안팎으로 시끄러운 이 때, 동대신문은 지금까지의 54주년을 자축하기보다는 반성과 숙고의 자세로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한 준비를 통해 보이지 않는 변화들을 부단히 따라가야 할 것이다.

황 균 민
(대학원신문사 편집장·연극영화과 석사과장)

다양한 시각 형성시키는 역할 중요

캠퍼스 안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학내 언론들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것들 중에 우리가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마주하는 것은 동대신문이지 않을까.

다양한 매체들 사이에서 동대신문은 다른 매체들과 다른 특성을 찾아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내 생각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인긴 하지만 그래도 신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손쉽게 접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 같다. 동대신문은 이러한 신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의 동대신문은 그저 정보지에 지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물론 정보의 전달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살리는데 동대신문의 조직적 특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의 세주체로 구성된 특징을 살려서 학내의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학내의 각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여러 곳의 의견을 들으며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신문기사의 질 또한 높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단순한 사실전달보다는 더 의미가 있는 기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대신문은 학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학우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외의 소식도 단순한 정보 전달 뿐 아니라 대학생의 시각에서 새롭게 재해석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학신문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는 단순한 정보제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만의 의견 또한 드러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우리의 동대신문 역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미미하다고 본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발휘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하고 발로 뛰어 점차 발전하는 동대신문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전 지 재
(동리 매체비평연구회 회장·사범대 교육3)

동대신문에 한마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만큼 앞으로도 올바른 대학언론 확립을 위해 힘써주세요~함내세우 파이팅 -sunflower
△자기소개서 쓰는 법, 면접방법 취입에 필요한 것들 좀 담아주세요

△취업난에 대비해 특집 좀 만들어 주세요
△등록금관련 학교 측 인터뷰 좀 실어줘요
△동대신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나의 주장 여론을 지면화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건 어떨까요

△내용이 너무 딱딱해요~ 쉽고 재밌는 내용도 많았으면 해요
△재밌고 신선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많이 봤다. 앞으로도 계속!!

△독자들 투고 받으려면 홈페이지를 좀 좋게 만듭시다. 요즘 인터넷으로 모든걸 하는 관인데 동대신문만 굳이 구식을 고수하려는 것 아닌가요.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글 하나 올리려면 너무 어려워 못하겠습니다

△동대신문, 대학신문 중에서 편집과 기획력이 우수하다는 평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신문 기대할게요 -unip

△신문배부대가 맨날 쓰레기로 난잡하다. 학내신문이라하면 학생들의 눈에 잘 띄는 좀더 명확한 곳에 신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엔 동대신문에 불만만 내용이 많았는데 요즘은 없다
△대학언론담당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실만을 보도해주길
△동대신문을 읽는 독자들이 다양한 만큼 주제선정에 있어서도 시대를 초월해서 다양하게!
△사람냄새 나는 신문이 됩시다!
△지면들 늘려주세요.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망고 망고 딱 걸렸네~
어머나 세상에 포시즌을 낳았네~♪
망고와 구아바 눈맞은 얘기~
♪ 뭘먹을까~ 고민되네~
세가지 다 먹자♪

화이트 구아바, 망고, 포시즌
Del Monte Quality
SWEETENED WHITE GUAVA, SWEETENED MANGO, SWEETENED FOUR SEASONS
TROPICAL FRUIT DRINK

델몬트 열대과일삼총사

동약로

엇갈린 논의



“어떻게 학생들이 장학금의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인가”

“학생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성과이니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 하지 않나요”

학교와 학생회가 장학금의 관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기금인 만큼 지원 학생을 학생회에서 직접 추천하고 지원 자격 역시 평점 2.0으로 낮춰 학생들의 어려운 집안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같은 학생들의 장학금 추천을 한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학생회가 주장하는 지원 자격조차 장학금의 기본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양측은 팽팽선을 긋고 있어 지난해 등록금 8%인상분 중 1%를 적립해 그 이자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음에도 현재까지 규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 양측간의 신뢰가 부족해 논의가 겹칠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회는 “총학생회가 장학금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이제 와서 바꾼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반면 학교 측은 “논의만 있었지 정확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서로 대화내용의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장학금 지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한 학기 늦춰진 상태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장학금의 ‘진짜’ 주인인 학생들에게 돌아왔다.

학교와 학생회는 더 이상 자리싸움 격인 ‘소모전’을 그만두고 논의의 자리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 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2260-3491-2 FAX: 2279-1270 문의·제보: dgupress@dongguk.edu

동국대학교 4·19혁명사 출간기념 기고

4·19정신을 재조명하자



심재익 동국대학교 4·19혁명동지회 사무총장

4·19 혁명 44년 만에 동국의 4·19 혁명정신을 재조명하여 동국대학교 4·19 혁명사를 출판하였다.

역사를 밝히다보니 양자가 있으면

면 음지가 있는 법이다. 4·19 혁명사 편집후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차에 걸친 편집회의를 거쳐 발행하고 재차로 산고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4·19 기념회를 서두르고 있다.

4·19 혁명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자유당 독재정권과 부정 부패에 항거 쫓겨난 3·1 독립운동 이후 최초의 학생민주시민주의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3·1 독립운동과 4·19 혁명의 민주 이념 계승은 헌법 전문에 명문화되어 있다.

동국의 4·19 혁명정신은 자유, 민주, 정의라는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자유 민주 수호의 역군이 되고, 정의 사회 구현에 역군

이 되며, 복지사회 건설에 역군이 되어 민족평화통일의 역군이 된다는 것을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

외면되어온 4·19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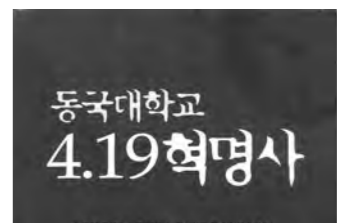
4·19 혁명 44주년을 회고해 볼 때 4·19 혁명 직후 우리들은 학생 본연의 자세로 임했다.

그리고 허정 과도정부를 거쳐 내각책임제로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었으나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간의 불협화음과 계파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5·16 군사 쿠데타의 빌미를 주어 30여년간 군사 독재속에서 6·3민주화투쟁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전두환

정권 당시 5·18광주항쟁에 이어 노태우 대통령 당시 박종철 물고문 사건으로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었다.

김영삼 문민 정부에 와서 4·19 의거를 4·19 민주혁명정신 계승을 헌법전문에 삽입하고 4·19 묘지를 4·19 국립묘지로 성역화 하였다.

도덕성을 재무장하고 이제 우리는 동국대학교 4·19 혁명사를 재조명하여 동국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영상화하여 3·1 운동 당시 만해 한운은 선사께서 불교계 지도자들을 이끌고 3·1 독립운동에 가담한 일로부터 4·19 혁명 그리고 6·3 운동과 5·16 광주항쟁에서 6·29 선언에 이르기까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하드라마를 제작하여 각 방송국과 후배들에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발행처 동국대학교 4.19혁명동지회 ·편집인 심재익

‘동국대학교 4.19혁명동지회’가 오는 19일 ‘동국대학교 4.19혁명사’를 발행한다.

이 책은 4.19 당시의 내·외신 보도자료 수집, 숨은 공로자 발굴, 정부기록 필름 검토, 그동안 발행된 신문방송관련 기록이나 회고록 수집, 증인 발굴, 등의 사업을 담았다.

아울러 퇴색된 동국의 4.19정신을 재정립하고 학교의 명예를 살리고 후배들의 자긍심을 높여려는 의도로 제작됐다.

대학 지향점 존중하는 대학평가 돼야

대학평가에 대해 뭐가 할말이 있어 글을 적던 중 ‘평가’가 국어사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궁금해 졌다. 지식검색소를 활용하자.

평가(評價) [명사] 1. 물건의 화폐가치를 결정함. 예) 회사의 재산을 평가하다. 2.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함. 예) 좋은 평가를 받다.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게 평가라면 대학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대학평가인가. 그렇다면 ‘가치’란 무엇 일까.

가치(價値) [명사]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의의나 중요성. 예) 이용가치가 있다. /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어사전의 의미로 대학평가는 각 대학이 지니고 있는 의의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대학종합평가’, 대학재정을 지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그리고 언론사나 임의단체의 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평가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대학특성 반영 부족’, ‘정부가관별 대학평가 기준의 상이 또는 평가내용의 중복’, ‘평가결과의 피드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더더욱 큰 문제점은 대학평가에 대한 시행기관과 대학 당사자간의 근본적인 접근차이에서 오는 간극이다. 즉, 평가자인 대학평가기관과 피평가자인 대학이 바라보고 있는 대학의 나아갈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약 10여년에 걸친 대학평가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대학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와 또다른 틀 안에서의 대학 길들이기였다는 상반된 평가가 상존하는 것도 주지해야할 일이다.

향후 대학평가는 글로벌로 대변되는 세계무한경쟁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학 스스로의 노력을 유도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몇가지 외형적 평가척도에 의해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도토리 키재기식 평가가 아닌 세계에서의 위상을 짚어보고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에도 있어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최소한 각 대학이 지향하는 특성화의 방향을 존중해 주는 철학이 내포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얼마전 조직개편을 통해 대학평가 기구인 ‘평가지원과’를 신설하였다.

대학평가에 대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통해 대학평가제도를 진일보시킬 것인지 아니면 평가를 불모로 또 다른 형태의 대학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리감독이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박정순(기획실행과장)

총장장학금 설문조사에 대한 우려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여론을 알아보는 것은 오늘날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일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설문조사이다.

설문조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객관적인 통계로 알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다수의 생각만이 옳은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또한 특정한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있는 설문조사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장학관련부서에서 실시한 총장 장학금 설문조사도 시기적으로 볼 때 이같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물론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장학금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공

유해야 한다는 장학관련부서의 의견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열어두지 않은채 무조건 총장 장학금 인하여만 초점을 맞춘 설문조사는 여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물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설문조사 시작 전에 첨부되어 있는 총장 장학금 내역은 설문조사의 결과성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학생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의 차원으로 제공된 것이었다면, 그만큼의 총장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실어야 했다.

활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채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만 부각시키는 형국이나 어느 누가 그 장학금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일지는 가. 이는 학교 측의 여론 물이다. 학생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총장장학금 개선안이 총학생회가 본관점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또한 학교는 진정으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학교 예산의 장학금 비율을 높여 실질적 장학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정준 (불교대 불교2)

우리가 원하는 정치 ... 투표로 만들자

요즘 대학가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부재자 투표소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속에서 나는 투표권이 생겼다는 현실이 조금이나마 더 어긋나겠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다.

우리 학교에서도 지난 달 학내 곳곳에서 부재자 투표소 신청받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부재자 투표를 한 학교에 신청자가 2천명 이상일 때 가능하며 학내에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대학생들의 투표참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부재자 투표

소의 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학교 외에도 여러 다른 대학들이 시작도 못하고 막을 내린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막을 올린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건국대, 원광대 등 전국 12개 대학교정에서는 투표소가 설치돼 지난 대선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 캠퍼스 투표소가 설치됐다.

‘왜 우리 설치를 못했을까’. 난 이 상황에서 착잡함을 느꼈다. 흔히 지식인이라 불리는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 없는 모습이 나에게 많

은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다. 탄핵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다.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저조하니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을 묵인했다. 이 문제를 보고 비판하는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내가 국회에 의견을 내는데 참여를 했다’라고 비판해봐야 할 것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는 우리 모두 정치에 참여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이규혁(이과대 반도체2)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참여의식높이는 기획 내용전달에만 급급해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와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계절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했지만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학내 많은 사건과 사고로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호 동대신문 역시 내용면에서 무거운 소재들로 가득해 마음까지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복잡한 내용의 전개방식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예를 들면 1면의 기사가 다시 몇 페이지 뒤에서 내용은 다르더라도 같은 소재로 또 한번 해석되고 있었다. 또한 너무 내용전달에만 급급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신문의 특성상 객관성을 띠고 있어야 하더라도 ‘이랬다’ ‘저랬다’ 식의 내용전달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보도면, 여론면, 사회면 모두 주제가 일관되게 정리되어 누가 읽더라도 알 수 있듯이 전개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하지만 주제기회면에서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관심을 가질만한 ‘총선’이라는 주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참여정신의 의식을 높여 줄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다.

동대신문이 좀더 깊이 있는 내용과 더불어 신문이라는 딱딱함에서 탈피해 밝은 소재로 하여금 신문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윽한 향과 따뜻한 학내의 학우들과 졸업생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대신문이 됐으면 한다.

홍선희(여학생실 상담원)



축하합니다

△4월 12일 행정00 박인수 생일 축하! △경제학과 99학번 안상현 봄날은 왔다. 지켜보겠어 -99일동 △재민이 축하해! △경영학과 2학년 이명철군 득 '여친' 축하합니다 -경영학과 일동 △정의와 3학년 박상구! 학교졸 일찍 와! △경향행정 38대 학회 출범 축하합니다 △문석아 21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상수야 잘됐으면 좋겠다 -ROK △인수♡승연 △동국대 불교학생회 4월10일 불기 2548년 연등원 개장을 축하합니다 -연등원장과 딸거지 △두호♡선용 △축! 김수용! 한백 기장되다! △인수형 생일축하해요

-백상 26대 응원단 △조소과 02학번 구희준♡윤혜용 커플~ 축하해주세요! △강정규씨의 군입대를 축하합니다 △수학과 오은미 생일축하해요 △은정선배 생일 축하해요. 못 불텐데 -선애

동약광장

△현수형 26번째 생일 축하! △주희연니! 오늘 생일 축하해 △정우야! 다래께 나눈거 축하해 -여친 경희

△타조알 생일 축하해 -미성 △재결합 축하해

열심히 합시다

△수빈아 공부 좀 해라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철 △회장 김진호 열심히 하자! -동률 연등원장

△심성관 학원 총무 열심히 좀 해라! △수교과 2학년 이지희야! 얼굴 좀 보고 살자 -싸이코 △역교04 여러분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합시다 -04 이정연 △아미야구부(L.A.E) 산업대 꼭 이기자! -만년포수(경희)

△국교과 등반대회 꼭 1등하자!! △4.15 총선 꼭 참여해요! △아기코끼리! 누리, 유진, 소정, 재범, 현우 28기 파이팅!! -맹구와 짝백이 △은미야 우리 중도에서 등거하자. 난 나가 너무너무 좋아 -똥생기 서리양 △명호야 열심히 해라 -경훈

△원하는 곳에 합격하여 부모님께 자랑 스런 졸업식을 -최대만 △승! 교육실습 재미있어? 처음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아리아리~ △4월 13일 불교대 선학과 진전회장 정은경 생일 축하한다 -엘리스틴

△재익아~ 술 열심히 사취 △세진이야 후배 받은거 축하하고 선배역할 열심히 해 △군대가고 나 잊지 말고 열심히 살아

수고하셨습니다

△응어!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느라 수고했다. -JE △불교대 해오름식 준비하느라 수고했어요 -98에비역 △베단타랑 고대 인도철학 숙제하느라 고생 많았다 △유나야! 규석아! 파이팅! -언니가 △영민아 수고가 많다. 좋은 성과 -J.S. JIANG △한근! 회원! 승용! 수지야! 시험 공부 하느라 수고했어~ △민주법학회 춘계모교지 멋졌습니다. 우리 03학번 집행부를 수고했어요~ -꿈의 대마왕

△지은아 수고했어! △삼디, 멋쟁이! 힘내

그리고 ...

△나 군대간다... △역교00 정현수 정신차려! -JY △사학과! 남산 막걸리 마시러 가자 -J △야총 경석아! 너도 정신차려!! △매방 너무좋아요~ △도서관은 토론하는 곳이 아니다 △야도생들은 돌아가라! 자리가 없다 △제대할 진태는 도서관에만 있는데! △상진 파이팅 -승원씨 △명욱이 감기 빨리 나아라 -미성 △상진 패발리여~ 영원하라! -상진·성민·형중 △중도에서 퇴실시 반드시 퇴실 처리를 합시다 △D-11 힘내자 △우리함께 환상의 3주를 즐기자 △지희야 빠른 패유를 빈다

이번호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지면사정입니다. (1384호) 당첨자는 김수정(국제2), 최정환(신방4), 김경민(컴공), 임수욱(회공4)입니다. 신문사로 방문하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건, 부편집인: 김국정, 편집장: 최성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http://www.dongguk.edu

잠재된 '차별의 벽' 을 허물자

속도는 '고속' 장애인 복지는 '저속' 철도

4월 1일부터 고속철도가 운행이 되었다. 그러나 고속철도는 우리나라의 최고급의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에서는 열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속철도 내의 장애인용화장실이다. 현재 설치된 장애인용화장실은 내부 공간이 좁아 전동휠체어는 들어갈 수조차 없고, 수동휠체어마저도 화장실에 들어간 후 화장실 문을 닫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청 관계자는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고 그동안 휠체어는 화장실 밖에 두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철도청의 대응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접근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장애인의 독립성과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하는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무지한 태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기획단 등에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철도청은 프랑스로부터의 계약 때문에 2년 이내에는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던 중 일반석의 역방향 좌석 때문에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여론이 빚발치자, 건설교통부는 갑자기 지난 4월 6일 고속철도의 좌석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고속철도의 운영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확대, 화장실 이용을 위한 이동휠체어 비치 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발표는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추진시민연대와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기획단에서 요구해온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확대, 장애인용화장실 재설치, 휠체어고정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승무원교육 등 4가지 요구안 가운데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확대만을 받아들인 것이며, 더욱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인 장애인용화장실의 재설치나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이동휠체어 비치라는 미봉책만을 내세운 것이다.

특히 이번 고속철도의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기획단에서 탑승 하려하자, 처음에는 휠체어사용자용 좌석이 2석뿐이므로 더 이상 탑승할 수 없다며 탑승을 막았고, 두 번째는 일반석으로 표를 구입해 탑승하러 하자, 이번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탈 경우 출발이 지연되어 일반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장애인 정책에 대해 가진 입장을 정확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10년이 넘게 준비를 해오면서도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

에 대해서는 배려를 거의 하지 않은 점, 장애인단체들의 요구가 있자 그제야 부랴부랴 시승식을 가지며 준비를 한 점, 그리고 편의시설 개선요구에는 핑계를 대다가 일반 승객의 불편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하는 점 등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2등 국민, 2등 시민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만연되어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일반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탑승을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막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소수이며, 차별의 대상임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고속철도는 비장애인에게만 고속철도일 뿐이다. 장애인에게는 고속철도는 무궁화호와 다를 바가 없는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더 비싼 요금을 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무궁화호보다도 더 못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셈이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바란다.

배용호
장애인편의시설추진시민연대 정책실장

장기수 인터뷰

“이젠 원하는 곳에서 편히 살고싶네”

영화 '송환'의 마지막 장면 '북으로 함께 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쉬움을 애써 남긴다. 아직 이곳에 남겨져 쓸쓸히 2차 송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31년 5개월간 수감된 정순택(84), 문상봉(80), 김영식(71) 할아버지가 그들이다.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었다며 호탕하게 웃는 정순택 할아버지는 '캠핑' 탈피를 위해 독학을 할 정도로 나이에 비해 매우 정정합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충북 진천이다. 그럼에도 고향을 등지고 지난 49년 아내와 함께 월북한 이유는 해방이후 친일파가 득세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남쪽이 자신이 바라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남쪽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앞날을 생각해보니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남쪽은 결국에 미국 세상이 되겠더라고요."

월북 후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하던 정 할아버지는 지난 50년과 58년 두 차례 대남정치공작원으로 남파, 58년 서울에서 체포돼 31년 5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체포당시 정부는 정 할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악명 높다는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문보다 주위 동료들의 비명소리와 처참한 고문 흔적들 때문에 '정신신경증'까지 얻었고 이를 견디지 못해 결국 전향서를 썼다.

하지만 국가는 명목상 '전향한 사실' 때문에 지난 2000년 9월 2일 이뤄진 송환에서 정 할아버지를 제외시켰다.

할아버지가 지난 99년 언론을 통해 전향취소 선언을 했음에도 말이다.

"나처럼 전향 뒤 전향취소 선언을 한 다른 동지는 북으로 갔다네.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왜 불가능하냐." 정 할아버지는 지난해 12월 국제제네스티로 이같은 차별처우에 대해 자신도 북으로 송환되길 바라는 항의서를 보냈다.

"월북 보고 싶은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나. 자식을 보기 위해서라도 꼭 살아서 가자지." 그동안 북녘의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속 한 칸에 묻어둔 정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지금 당뇨병과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보기 위해서다. 만약 우리 민족의 통일이 이뤄진다면 할아버지의 지병도 말끔히 나아지지 않을까.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대학생 청각 장애인 정민자(전남대 미술4)양 인터뷰

“학교마다 장애인 지원센터 필요해요”



오는 20일은 24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이에 우리 또래 친구인 대학생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민자(전남대 미술4) 양을 만나 대학생활 하면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대학생활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몇몇 대학 중에는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에 어려움을,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을 원활히 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또한 대학생활을 하면서는 정보를 얻는 데 불편함이 많다. 공지사항을 알지 못할 때는 물론 심지어 지각하지 않았는데 지각체크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 4학년인데 졸업 후 취업이 걱정되지는 않는지.

= 요즘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된다. 꿈도 있고 욕심도 많지만 우리사회 인식에 비춰볼 때 취업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 사람들을 봐도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사람이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을 조금 원활하게 하지 못할 뿐인데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를 소외시킨다는 점이 답답하다.

- 대학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은 없는지.

= 쉽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마다 장애인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수화통역과 문자통역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늘려 학내에서 간단히나 특별초청세미나를 벌이는 어려움 없이 듣고 싶다.

또한 정부는 수화통역사를 많이 배출하고 각 구청이나 가까운 곳에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했으면 한다.

이외에 각 지역마다 자막을 제공하는 극장을 한 두 개정도 마련하면 어떨까.

- 장애인 처우개선 등을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지.

= 장애인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부족 속에서 평생동안 교육·취업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여름방학 때 국토순례를 통해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을 사회에 알리고, 농대학생 학습권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할 예정이다.

- 학생들이나 교수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동정하기보다 친구처럼 편하게 어울렸으면 좋겠다. 또 관심을 조금씩만 더 가져줬으면 한다. 교수님은 강의자료를 미리 이메일을 통해서나 직접 전해줬으면 하고, 출석을 부를 때는 학생얼굴을 보고 체크했으면 좋을 것이다.

황우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장애인 복지관 봉사활동 후기

편견에 가려진 또다른 우리

"내일 시간 있니?"
"나 내일 땡학교 가는 날이야."
"땡학교? 눈 안 보이는 아이들 가는 학교? 거기는 왜?"
"어, 일주일에 한 번, 방과 후 수업이라 해서 2시간 동안 아이들처럼 같이 공부해."

"너 점자 알아? 점자 알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며칠 전, 친구와 메신저에서 약속을 정할 때 나온 채팅 내용이다. 친구들은 땡학교에서 수업하는 나에게 호기심과 약간의 격정 어린 시선을 동시에 주곤 한다. 전혀 만나보지 못한 다른 세계 사람들을 생각하듯.

2년 전 가을, 나 또한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서울 국립 땡학교 고 아이들을 만났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맡게 된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아이들이 거리는 생각과는 달리 약시와 중도 실명한 아이들도 있었다. 긴장을 머금고 시작한 첫 수업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끝나 나를 당혹케 했다. 나는 눈으로 읽고 그들은 손으로 읽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 쉬는 시간에 여는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히트 중인 드라마의 흥미진진함, 다운 받아 듣고 있다는 대중음악 제목들을 나열하며 재잘대는 아이들! 응당 그 나이 또래의 화제에 집중하며 수다 때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시각 장애인임에도 인터넷을 하고 방영 중인 드라마를 알고 있네!' 라고 놀리워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쌓아 올려진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맞닥뜨린 시점이었다. 점자를 알아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친구들의 질문도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자연스러운 일이 당황스러운 사건으로 느꼈던 첫 수업 이후 네 학기 짝으로 접어든 지금, 그간 느낀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점자 도서의 부족이다. 점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은 관계로 소수의 책만이 점역서로 제작되기 때문이다. 실로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데 이들이 접할 수 있는 참고서는 복지관에서 수업용으로 정한 교재가 거의 전부이다.(시판되는 문제집을 사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점역해주고 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읽을 수 없는 제한된 선택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난 겨울방학에 있었던 워크샵에서 만난, 유독 책 읽기를 좋아하는 신해가 다양한 도서를 맘껏 골라 읽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강효중(문과대 영문4)

취미와 취업을 위한 단기강좌

공공시간을 알뜰히 보내자!

1. 기간 및 강좌 : 5월 4일 ~ 28일 (주1회 2시간씩 총 4회)

강좌명	강사	내용	시간	비고
댄스&댄스	손재현 체육교육과 교수	재즈·나이트댄스	화요일 2:30 ~ 4:30	-선착순 40명 -체육관 -면양말 착용
이미지 메이킹	박소경 밝은미소문동본부 강사	1. 표정연출법 2. 인사에절법 3. 커뮤니케이션 스킬 4. 아름다운 자세 연출법	목요일 2:00 ~ 4:00	-첫시간 거울준비 -물체·넷째 정장착용
발마사지 & 경락	안옥순 한국발반사학회 상임이사	1. 날씬한 종아리 마사지 2. 변비, 비만, 두통, 요통해소 3. A+를 위한 집중력&기억력 4. 통쾌법(아계&Back풀어주기)	금요일 3:00 ~ 5:00	-재료비 3만원추가

2. 접수 : 4월 19일 ~ 23일, 여학생실(계산관 1층, ☎ 2260-3058)

3. 대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 선착순 마감

4. 수강료 : 10,000원(100% 출석시 환불)



◆ 취미 : 학내에서 공공시간을 이용하여 정서함양과 교양습득에 도움이 되는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여 학생 실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제 42회 문학콩쿠르

나는 지금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 간다

1. 응모부문 및 제출편수

- 시·시조 : 2편 ~ 3편
- 소설 :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 수필 : 1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 응모 및 심사

주제에 상관없이 본인의 순수 창작 작품을 우편으로 응모하면 심사를 거쳐 본선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교로 통보합니다. 본선 참가자는 6월 12일(토) 10시 30분 본교에서 열리는 백일장에서 주어진 주제로 작품을 작성하여 향연을 펼치게 됩니다.

3. 시상

각 부문별로 장원 1명, 차상 1명, 차하 2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하며,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선시에는 본교로 작품권이 귀속됩니다.

4. 장학금 지급

- 장원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2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차상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1년간 등록금의 30% 면제
- 3위(차하) 이내 입상자는 본교 입학시험에 문학특기자 응시자격 부여
- 본교 재학 중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이 우수한 자에게는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5. 작품제출기간

2004년 5월 3일 ~ 5월 22일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직접접수 가능)

6. 작품제출처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7. 주의사항

응모작품은 원고지나 A4용지에만 작성하고,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mail 및 Fax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http://www.dgulit.net)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02) 2260-8773
동대신문사 (02) 2260-3491~2

피할 수 없는 시험, 쉬엄쉬엄 풀어보자~

국어사전에 커닝은 '(시험중에 수험자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함'이라고 나와 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노력한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부정행위'인 커닝. 이전 더 이상 누구나 다 한다는 식으로 학생들이 커닝을 단순히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고도화된 커닝수법

커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방법이 다양해졌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과거'가 치러지던 현장에 가보자. 대부분 짐작아 보이는 유생들이지만 일부 유생들의 속내는 그리 짐작지않은 않았다. 시험 필수준비물인 붓대롱 속에 커닝 종이를 넣어 옷소매에 작은 책을 넣어 훑쳐보기도 하고, 손가락 길이란 한 가는 대나무살에 경서 첫 구절을 적어놓고 물레 보는 방법 등이 있었다. 조금 대답한 방법으로는 모범 시험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붙이는 일조차 있었다. 이처럼 커닝은 시대를 초월해 존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커닝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고전적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손바닥에 쓰거나 커닝종이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대답한 학생들은 시험지를 통 채로 옆의 학생과 교환해 커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모범답안을 깨알 같은 글씨로

편집해 투명한 OHP비닐필름에 인쇄해 책상위에 올려놓는 방법, 코팅된 모범 답안에 고무줄을 연결시켜 책상 아래에 놓아놓은 뒤 당겨서 보고 감시하는 사람이 올 때 놓으면 책상 아래로 숨는 커닝종이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시대가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커닝방법도 다양해 졌다. 컴퓨터 수업의 경우 메신저로 커닝하거나 이메일로 과제를 전송해 커닝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적으로 변한 것이다.

뒤는 '커닝' 위에 날으는 '감시' 있다

이런 고도의 방법까지 사용하며 행해지고 있는 부정행위를 방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시험시간 강의실에 경찰관, 교수와 조교가 바로 그들이다. 아무리 커닝이 고도화 됐다고 하지만 이들이 커닝하는 학생을 찾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신방과 조교를 맡고 있는 장환 대학원생은 "시험감독 몇 번만 해봐도 커닝하는 학생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커닝하는 학생들은 조교와 눈을 자주 마주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컴퓨터 실습시험을 감시했던 이주형 조교는 "온라인 커닝하는 것을 대비해 메신저를 차단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사회에 커닝이 만연하고 있는 이유로는 이에 대한 처벌이 느

슨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약한 처벌태도가 커닝 조장에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엄기현(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교수는 "내 시험시간에 커닝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퇴장조치를 시킨다"며 "학생들에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커닝하는 학생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한 40명이 수강하는 과목에 5명의 조교를 시험감독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적발조치를 강화해 커닝을 막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커닝이 양심을 파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점을 잘 받기 위해 커닝하는 학생들 자신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성인이라 불리는 대학생들이 자신과 남을 속이고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 얻기 바라는 행위는 하루빨리 고쳐야할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커닝은 모두 한번쯤 한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실히 공부한 친구와 선배, 그리고 후배의 학점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가 된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명심하며 커닝 없는 시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시험기간 건강유지 비법

눈의 피로 결명차로 말끔히

개강을 한지도 어느덧 훌쩍 한 달을 넘어서 이제 나뭇대로 적음도 되기도 했지만 또 그런 만큼 처음의 각오와 다짐이 흐트러지기 시작해 자칫 생활의 리듬을 잃기 쉬운 때가 아닌가 하다. 특히 점심식사 이후에 듣게 되는 강의는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졸리고 나른해져 눈꺼풀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곤 한다. 게다가 조금 있으면 창밖의 진동하는 꽃향기와 눈처럼 흩날리는 벚꽃을 애써 외면한 채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을 해야 하는 중간고사까지 다가오게 되는데 이때 계속해서 가까이서 책을 보다 보면 눈도 뻑뻑해지고 충혈되면서 심한 경우 머리카락이 무겁고 뺨이 뺨뺨해짐을 느끼게 된다. 특히 근시나 난시 등의 굴절이상인 경우 눈의 피로증상과 안구의 건조감을 더욱 심하게 된다.

이럴 때는 먼 곳의 산이나 건물을 바라보면서 과도한 조절작용에서 오는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또 천천히 부드럽게 목을 상하좌우로 이완시키면서 돌려주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기울인 쪽의 손으로 머리를 감싸 이러한 자세를 5초정도 유지해 준다. 또 두 팔을 뒤로 보내 마주 잡고 지면과 평행하게 될 때까지 올려주어 어깨를 펴준다. 우리 몸에서 특히 목 주위에는 많은 경락이 흐르고 있는데 이 부위는 기와 혈의 순환에 있어서 일종의 병목지점이 되어 자칫 잘못하면 기혈이 잘 흐르지 못하고 막혀 목의 위쪽으로 통증이나 저린 느낌, 열감 등의 이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끔 불규칙한 자세 등의 운동을 통해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좋다.

눈 피로증의 주요 원인인 안구건조증하면 영화 '접속'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눈물이 나오지 않아 울고 싶어도 울 수

가 없었던 영화장면이 생각난다. 점차 젊은층에서도 이러한 안구건조증이 늘고 있음에 목격하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주 눈을 쉬어 주고 적당한 실내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눈 주위 경혈점을 찾아 자극해 주는 것도 좋다. 즉, 눈썹 시작 부위에 있는 찬죽혈, 눈썹 끝 부위의 태양혈, 눈과 코등 사이의 정명혈, 아래 눈꺼풀 정중앙 아래에 있는 승음혈을 손을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천천히 5초 정도 눌러준다든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동그란 원을 그려가며 문질러 주는 것도 눈의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눈의 열감을 없애주면서 눈을 보해주는 결명차나 구기자차를 꾸준히 마셔주시는 것도 좋다. 건강한 시험기간이 되기 바란다.

최인화
본교 한의과대학 교수

“시험불안 ... 이렇게 해결해요”

시험불안(test anxiety)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이나 시험을 치르는 도중 혹은 시험 후의 시험결과에 대해 학습자가 느끼는 열려와 걱정으로, 시험 단계 뿐 아니라 학습 단계에서도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적당한 불안과 긴장감은 학습의 성취동기와 집중력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과도하고 불필요한 불안은 시험을 앞두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감정을 갖게 하거나 집중력 저하, 두통, 시력장애, 위장 장애, 현기증 등의 신체적 증상이나 불면증, 의욕상실, 자포자기, 식욕부진의 정서적, 행동적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때문에 시험에 대처서 또는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공부에 집중이 안되어 좋은 성취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불안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우선 긴장 완화를 위한 기법들을 사용해 본다. 공부하는 중에 긴장이 오면 잠시 눈을 감고 아랫배로 천천히 깊게 쉬는 심호흡을 하거나 신체 각 부분에 힘을 주어 의도적으로 긴장시킨 후 순간적으로 확 이완시킴으로써 잠시 여유를 갖고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한다. 또 자기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불안 감정을 다른 사람과 얘기 나눔으로써 정서적인 지지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억압되었던 감정도 표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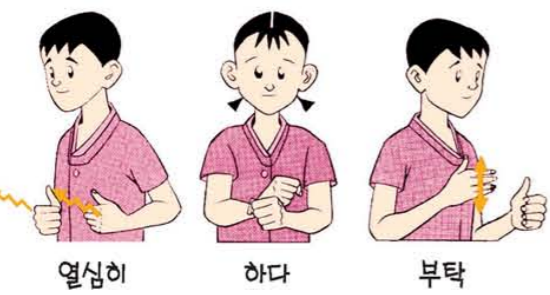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이 불안을 일으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무리한 시험계획이나 지나치게 완벽하고 높은 성취기준을 설정해 놓고 자신을 정신없이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시험의

결과에 대한 주위의 인정과 경제적 보상에 지나치게 연연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정적인 시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면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며 과연 그 위험성에 합당한 정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겪고 있는 시험 불안의 원인과 증상을 정확히 안다면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혼자서 해결하기 너무 힘들다면 상담사와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영희
학생상담센터 상담원

손으로 말해요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하세요.”



중간: 왼손으로 다자를 쓰고 오른손을 펴서 중앙에 갖다 댈다. 한문의 중자를 나타낸다.
시험: 양손 엄지를 펴서 엇갈리게 위아래로 움직였다 내렸다 한다.
공부: 양손을 펴 머리 앞에서 앞뒤로 움직인다.
열심히: 양손 엄지를 세운 후 좌우로 움직이면서 앞쪽으로 내린다.
하다: 양손을 주먹 쥐 후 오른손주먹 밑 부분으로 왼손 손목을 가볍게 두드린다.
부탁하다: 왼손 엄지를 펴서 세우고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펴서 위로로 한두 번 흔든다.

제공 = 손짓사랑회

정보마당

취업

강사모집
모집부서: 초등수학 강사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이력서
제출기간: 4월 12일까지
문의: 031)265-1151

사무직군 임시직 모집
모집부서: 사무직군 임시직
모집인원: 2명
자격: 초대졸(휴학자 포함 최소 2년 재학 이상) 이상
모집기간: 채용시까지
문의: 02)877-0011

영어캠프강사 모집
모집인원: 15명 내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집기간: 적임자 선별까지
접수: ricky@joogang.co.kr

계약직 사원 채용
업무내용: 경리장부정리, 서류정리, 세무서/우체국 방문 등
모집기간: 4월 17일까지
문의 사항: HJJUN@Dow.com 한국다우케미칼 관리부 전효정

* 자세한 정보는 본교 취업지원팀 (3053)에 문의하세요.

아르바이트

햇볕어행사
업무내용: 일반사무업무
제출서류: 이력서(직접방문제출)
기간: 4월 13일까지
문의: 02)566-5510

달배에 대한 좌담회
대상: 서울, 일산, 분당 거주 휴먼경력 2년 이상된 만 21세~39세 남자 대학생
사례비: 대학생 20,000원
기간: 4월 18일까지
문의: 02)2122-7320

장기 아르바이트 모집
모집분야: 보안대원 코엑스몰
급여: 월 1,200,000
기간: 4월 15일까지
연락처: 02)557-0461.5

사무정리, 회계 아르바이트생
모집인원: 여 00명
자격: 회계학, 무역학, 중국어과 전공 학원(1, 2학년)
시급: 4,000원
기간: 채용시까지
연락처: 02)252-1459

계량기(저울)조사 아르바이트
시간: 10:00 ~ 17:00

일당: 25,000
인원: 남 6명
연락처: 02)2260-1836

기타

제2회 엔지니어링 우수논문 공모
자격: 대학(원)생, 일반인 한국국적 소유자
제출물: 논문원본 1부와 3.5인치 디스켓,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1부 첨부
접수마감: 6월 30일까지
문의: 02)3019-3344

LG Global Challenger 2004 모집
자격: 전국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탐방활동 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가능 학생
선발인원: 30명(120명)
제출서류: 참가지원서, 탐방계획서, 지도교수 탐방계획 지도 확인서, 재학 증명서
기간: 우편·인터넷
4월 15일~4월 30일 방문
4월 29일~4월 30일
문의: 02)3777-2600, 2800

금주의 식단

	등국관	상륙원	교직원
월 (4/12)	부대찌개 (1500) 치킨가스 (1500) 제육콩나물볶음(1500)	참치찌개 (1500) 달걀비빔음 (1800) 링수육백반 (1500)	된장찌개 (3000) 버섯전골 (3200) 제육볶음 (3200)
화 (4/13)	설렁탕 (1500) 두부김치 (1500) 참치회덮밥 (1500)	떡만두국백반 (1500) 돈육고추장불고기 (1500) 김치볶음밥 (1500)	된장찌개 (3000) 김밥 (3500) 불나물비빔밥 (3200)
수 (4/14)	닭가슴 (1500) 간짜장 (1500) 오징어떡볶이 (1500)	돈갈비김치찌개 (1800) 오징어볶음 (1500) 닭꼬치구이 (1500)	된장찌개 (3000) 닭조림 (3200) 날치알솥밥 (3200)
목 (4/15)	선거일 휴무	선거일 휴무	선거일 휴무
금 (4/16)	소고기해장국 (1500) 양송이해물볶음 (1500) 리조육 (1500)	바지락수제비 (1500) 모듬볶음밥 (1500) 김비빔당면백반 (1500)	된장찌개 (3000) 튀김우동 (3500) 이면수국이 (3200)

금주의 추천메뉴

참치회덮밥 (등국관 화요일 석식)
참치는 단백질 함량이 생선중에서 가장 높을뿐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보다도 훨씬 높다. 반면 지방 함량은 낮기 때문에 고지방 저열량 식품이다.
또한 참치에는 EPA, DHA 등의 고도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